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JUN 1 6 1981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일간) No. 536 1981년6월10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June 10.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나이아가라를 렌즈에
약80명, 홍겨운 1박2일

"나이아가라를 찍읍시다"라는 캐취·프레이즈아래 작년 제5회대회에이어 나이아가라 폭포 부근에서벌어진 제6회 아마츄어 사진촬영대회 1박2일의 스케쥴은 쾌청한 날씨와 더불어 사진촬영자들은 물론 동반가족들에게도 호뭇한 시간을 갖게했다.

캐나다 한인 사진협회(회장 이인덕)와 본사가공동주체한 대회의 집합시각은 6일 하오2시정각.

집합장소인 카누크·모텔에 1착으로 도착한 사람은 임정재사진협회 부회장과 김명선 섭외부장. 바로뒤이어 이강현(73)옹이 3대의 카메라를메고 바삐들어섰다. 그는 작년에도 이대회에 참가했었으며, 토론토에서 기차로 온 것.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는 대회 참석자들은 각각 방을 배정받은 후 자유촬영에 들어갔다.

구름한점없고 바람도 잔잔한 촬영에 안성마춤인날씨덕분인지 아마츄어 작가들은 셔터를 누르기에 분주했고, 같이온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대자연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작가들의앵글에 코멘트를 주기도하는 분주한 모습들이었다.

저녁 8시 약속한대로 전원 모텔에 집합해보니 참석인원은 모두 79명.

예년보다 총인원은 줄었으나 가족의 동반없이 촬영에만 전념하려온 싱글참석자들이 많아 실제촬영대회는 질적으로 발전한 셈이라고 이인덕회장은 말했다.

8시부터 9시까지 사진협회 전회장 전경수씨를 강사로 야간촬영 기법에대해 세미나를 가졌고, 저녁 식사가 끝나자 12시까지 야간촬영에 들어갔다.

이어 12시, 사진협회 이인덕 회장으로부터 풍경촬영에관한 강의를 들었다.

세미나 전에는이축길 전회장, 전경수 전회장및 이기성 전총무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그냥 잠들기가 아쉬워 간단한 노래와 오락프로를 가진뒤 2시경 취침에 들어갔다.

7일 새벽4시부터 시작된 새벽촬영에서 이옹을 포함한 일부 촬영진은 해돋이 광경등을 찍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1시 공원에 집합, 사진협회가 베푼 바베큐를 즐겼고, 예년대회에서 없은 가족들, 특히 아이들을위한 각종게임에서는 협회 임원진이 마련한 푸짐한 상품으로 전원이 홍겨운 시간을가졌고 하오 3시경 해산했다

여성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수가 늘어 9명이나 되었고 첫 대회부터 계속 참가 한 김영찬씨가 이번 대회에도 빠짐없이 참가하는 열의를 보였다.

◇웅장한 모습의 나이아가라 폭포. 난간위로 셔터를 누르는 촬영대회 참석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촬영·이인덕 회장)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먼로장관 선지 고소
사과불구 취하못해

존·먼로 연방 인디언및 북부문제담당 장관은 9일 토론토·선 지가 비록 사설을통해 자신에 사과했다. 하더라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음을 확인했다.

토론토·선 지는 지난2일 먼로장관을 비롯한 연방정부 각료들이국영 페트로·캐나다가 페트로·피나를 인수하기 직전 페트로·피나의 주식을 사들였다. 국영회사로 된 뒤 이를팔아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대해 먼로장관은 이보도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트루도 수상은 이를 "가비지"라고 한마디로 일축했었다.

먼로장관은 8일 변호사를통해 추징금 50만달러와 손해배상 25만달러및 소송경비를 요구하는 소송을온타리오주 지방법원에 제기한 것.

토론토·선 지는 법적소송이 있은 하루뒤인 9일자 10면 사설에서 "그 기사는 취재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데서 나온 오보"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주택업자 보호책
연방정부 검토중

(오타와)연방정부는수년전 연방정부의 지원하에임대용 주택을 건설하기로계획했다. 완공전 높은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파산하게 된 주택건설업자들을보호하기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방관리들은보호대책이 주택건설업자들을 돕기위한 것이기 보다 캐나다 모기지및 주택공사에 보험을 든 모기지들이 사전에 클로즈되는데 드는 경비와골치거리를 예방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폴렌 체육연맹 회장 내한

(서울9일연합—본사특약) 국제 아마추어 체육연맹의 A.폴렌회장은 9일, 88년도 하계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의 스포츠시설이 올림픽경기 개최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보기 위해 내한, 김포공항에서 이같이 말했다.

폴렌씨는 서울과 일본의 나고야가 올림픽경기 개최를 위해 이미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가디너 보수검토
CNE부근소통위해

6천2백만달러를 들여 가디너·익스프레스·웨이북쪽의 CNE부근 익지비션·파근처를 재개발하는 계획안이 11일 토론토시 의회 집행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

38에이커에 걸친 지역을 재 개발하는 데·르·캔회시 가숭친이 내놓은 이 안에 따르면 파·데일 남쪽에서 호수가로 접근할수 있고, 던·에비뉴와 제임슨·에비뉴의 익스프레스웨이 진입료가 폐쇄되는대신 더퍼린·스트릿과 도울링·에비뉴에 진입료가 생긴다.

79년6월 토론토시와 메트로·토론토가 공동으로 의뢰, 이날 밝혀진 이 계획안에대해 아트.이글톤토론토시장 측근들은 절대적인 환영을 표시했다.

이 재개발계획이 그대로 착공될 경우 제임슨·에비뉴와 던·에비뉴구간 가디너익스프레스웨이와 CN철로는 지상으로 둑을세워 올려지게 된다. 레익셔·블루바드의 일부는 지금보다 더 남쪽으로 옮겨진다.

이 구간의 가디너·익스프레스웨이에는 현재 매일 7만4천대의 차량이 통과하고있으며 특히 출퇴근시간이나 CNE가 열리는 기간에는 큰 교통혼잡을 빚고있다.

◇쇼팡의 피아노 협주곡F단조를 한인교향악단과 협연할 백건우씨。

교향악단 2회공연 박두
백건우씨와 쇼팡2번협연

피아니스트 백건우씨 초청 한인교향악단(지휘자김승순) 제2회공연이 금주말로 박두했다.

교향악단은 오는 일요일 14일 오후8시 웨버의 서곡〈마탄의 사수〉 작품77번과, 쇼팡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21번,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E단조 작품 95번〈신세계〉를 연주한다.

"제2회 연주회는 우선 곡목선정에서 부터 교향악단의 진일보된 역량을 선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쇼팡의 제2번 피아노협주곡은 웬만한 피아니스트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난곡이다."고 윤호섭씨(모짤트음악학원원장·교향악단이사) 가 말했다.

쇼팡의 2번 피아노협주곡은 한국에서도 좀처럼 연주되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2회공연장소는 1회때와 같은 Ryerson Theatre(43 Gerrard St. E.)이며 입장권은 현재 각 식품점에서 예매중이다.

교향악단측은 8세 이하 어린이의 입장을 사절하며 미쳐 예매권을 구입하지못한 사람은 당일 공연장소 입구에서 표를 살 수 있다.

입장권은 A석 $10. B석 $8이다.

파리에 거주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씨는 이번 협주를 위해 12일 토론토에 도착할 예정이며, 부인 윤정희씨와 가족은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건우 공개강연
16일 프린스·호텔

세계적 대가급 피아니스트 백건우씨초청, 공개강의(매스터·클래스)가 16일(화) 오후5시부터 2시간동안 프린스·호텔(900 York Mills Rd.)크라운·룸·웨스트에서 열린다.

모짤트 음악학원(원장윤호섭)이 주최하는 이 매스터·클래스에는 중견급 피아니스트들 3, 4명의 시범연주를 듣고 이에 대한 백건우씨의 평을 겸한 연주에 관한 강연및 질의 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회비는 저녁식사비 포함 30달러씩이다.

문의 전화는 모짤트음악학원(전화 881−8211)이며 참가인원은 약 백명으로제한돼있다.

청와대, 각당 대표 초청

(서울9일연합—본사특약)

전두환 대통령은 곧 각 정당지도자들을 만나 국사전반에 관해 의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 소식통이 8일 말했다.

법회 시간 당겨
선련사, 신앙강좌

한국불교회 선련사(46 Gwyne Ave × Dufferin)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종전12시에 봉행하던 정기일요법회를 오전11시에 봉행한다.

선련사는 또 7월2째일요일부터 매주 오전10시에1시간씩 불교신앙강좌를 개설, 천수심경, 반야심경, 금강반야경을 차례로 강의하며, 일반의 참석을 환영한다.

강사는 삼우스님, 선련사의 전화는 533−6911, 532−3491

대통령취임식 참가자
기념메달 전달

지난 3월3일, 제12대전두환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한 3명의 토론토교민에대한 참가기념메달 전달식이 10일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있었다.

정인기 노년회장 황대연 전 한인회 이사장, 박광철 전 동우회이사장에게 모국정부가 보내온 메달은 이날하오 6시30분 이상훈 총영사가 전달, 이어 축하만찬이 있었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illegible]2
(R) 245−3539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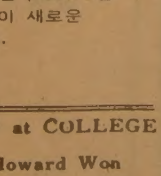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Daily Newspaper ·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아 세 아
건 재 약 방
선 물 센 타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청심환을
대량직수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고저
하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北京同仁堂
牛黃清心丸
大量入荷
BIG SEVEN TRADING CO.
678 BLOOR ST. W. TOR.
(고려식품옆)
☎: 530−0522. 3
조지섭·김영철

서울행단체 매주출발
IATA 저렴한 요금의
●국내항공표일체 ●각종관광여행
●국제항공표 일체 ●각종 CREDIT카드 환영
신용과 경험과 책임성있는
여러분의 여행사!!
KOREA TRAVEL SERVICE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TORONTO
(B)531−4607 (R)487−8088
성낙윤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전 북미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GM의 신형모델 J2000가 에디슨에 나와 있읍니다. 각종외국 수입품보다 Engineering. Technology, Gas Mileage에서 월등하며 GM역사상 가장 센세이숀널 J2000를 시운전 해보시고 북미의 이 새로운 Feeling을 체험해 보세요.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대낮에 교포청소년 강도단

나성서 SWAT팀·헬기출동, 4명중 3명은 도주

(나성지사)10대 교포청소년들로 구성된 4인조 무장강도가 대낮에 교포집을 털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범인 1명이 체포되고 3명이 도주했다.

지난 5일 상오11시30분께 LA시내 HANCOCK PARK소재 교포 강수근씨(가명,50세)집에 4인조중 2명이 변소유리창을 깨고 침입한후 2층에 있던 가족 2명에게 「엎드려라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현금이 필요하다 있는 돈을 모조리 내놔라」하며 입을 틀어막고 담요를 뒤집어 씌워 권총과 쇠망치로 위협했다.

이때 다른 방에 있던 가족이 경찰에 신고, 경찰이 출동하자 범인들은 뒷집담을 넘어 도망치다 1명만 체포되었다.

사건당시 범인들은 1명이 1층에서 망을 보고 1명은 집밖에서 차에 시동을 건채 대기하고 있었으며 2명이 집안에 침입했다.

신고를 받은 윌셔경찰서는 5분만에 현장에 출동, 범인을 체포했으며 LA경찰서 S.W.A.T.팀과 헬리콥터가 현장을 포위, 범인추적에 나섰으나 3명은 붙잡지 못했다.

사건당시 강씨집에는 가족 3명과 가정부등이 있었으며 낯선 청소년 2명이 2층에 나타나자 플러밍 수리공으로 착각, 몇마디 말을 건네던중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다고 한다.

강씨가 살고 있는 집은 HANCOCK PARK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시큐리티·가드가 24시간 순찰하는 지역이다.

강씨집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4일전에 범인들로 보이는 청소년이 전화를 걸어 가정부가 받자 「목소리가 예쁘다」고 허튼 수작을 부렸으며 이어 다음날에도 낯선 청소년 2명이 나타나 문을 두드리다가 인기척이 나자 달아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붙잡힌 범인 1명은 16세 교포청소년으로 L고교 재학생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 정식 항의문

(오타와)캐나다외무성은 이스라엘의 이라크 핵발전소 폭격에대한 정식항의를 제기할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맥기건외무상이 9일 밝혔다.

맥기건외무상은 정식 항의서를 발표하기전 모든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지만이, 스라엘의 이번 폭격은 정당화 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계각국 이스라엘 비난

이스라엘, "개의치않아"

(예루살렘)이라크의 오시락 원자로 기습에대한세계각지의 항의에대해 모나켐·베긴 이스라엘 수상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고대응했다.

베긴수상은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이라크 핵발전소를 전폭시키고 돌아오는 광경을 찍은 칼라비데오테잎을 각료들에게 보여주며 기쁨을 나누었다.

이스라엘은 이라크 원자로가 이스라엘 국민의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었으며, 이번 폭격으로 이라크의원자폭탄개발은 3년정도늦추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서방각국들은 이번 폭격을 심각한 국제법 위반행위라고 이구동성으로 비난했고, 아랍국가들은 이를 테러주의의 만행이라고 못박았다.

「아시안 게임」유치 추진

(서울9일연합—본사특약) 대한체육회는 86년도 아시안 게임을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해 아시아국가의 영향력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을 방한초청할 계획이다.

체육회 간부들은 이 계획의 일환으로 쿠웨이트 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이 6월중에 방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항공화물 요금 20% 인상

(서울8일연합—본사특약) 서울과 북미주간의 항공화물 요금이 20%까지 오르게 될 것이라고 항공업계 소식통이 8일 말했다.

관리들은 이 노선을 취항하고 있는 KAL, NWA, 후라잉 타이거등 3개 항공사가 지난 3월 항공요금 인상을 허가받았으나 수요가 낮기 때문에 인상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일반화물은 20%까지, 콘테이너는 10%까지 인상을 허가했다.

따라서 이 노선의 최저 항공화물요금은 5킬로그램까지 미화 41달러가 된다.

교 민 동 정

◆여정웅(홍대 동창회부회장)=건축설계사인 여씨는 부인을 위해 제인과 에그링턴남쪽의 제인·파플라자안에다 꽃집제인·팍·가든을 개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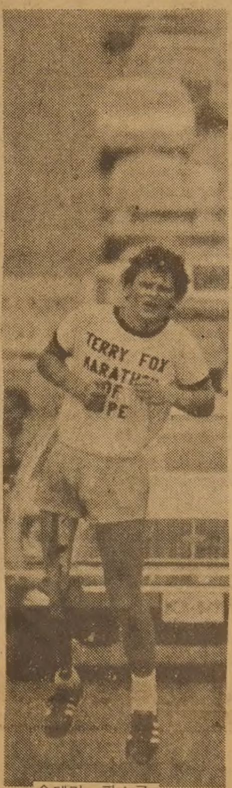
고급주택을 주로짓는 맥클런톡·홈즈회사에 다니는 여씨는 74년 이민오기전 68년도 국전에서 작품 〈시민의 광장〉으로 국회의장상을 타기도 했다.

인테페론 주효한듯 테리팍스 주치의

인터페론 주입으로 테리·팍스군의 체내에있는 암세포가 더 이상 번식 하지는 않는것 같다고 의사들이전했다.

희망의 마라손의 주인공테리·팍스군의 패밀리·닥터 헤펠핑거박사는 8일 테리·팍스가 수개월전에 보여졌던 암세포 번식증세를더 이상 보이지않고 있는것으로 보아 인터페론이 확실히 효과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인터페론은 1957년 영국의 과학자들이 발명해낸백혈구 조직에서 채취된 값비싼 치료제로 아직 항암제로 공식인정은 받지못했으나 일부 암환자들에서는 효과를 보고있다.



◇테리·팍스군

토니상 의상부문 수상자 윌라 김 여사

"한국의상 디자인도 하고 싶어"

7일밤 브로드웨이에 있는 마크 헬링거극장에서 거행된 제35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의상상을 수상한 윌라 김씨는 나성에서 약 50 년전에 태어난 교포 2세.

불란서계 미국인과 결혼 파리와 뉴욕을 분방하게 왕래하며 바쁜 일과를 보내는 윌라 김씨는 한인교포로는 최초로 큰 영광을 차지한 세계적인 무대 의상 디자이너이다.

시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심사위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매우 흥분되고 초조했었다』는 김씨가 이번에 SOPHISTICATED LADIES에서 의상상을 받은 것은 그러나 우연 은 아닌 듯.

50대에 접어든 인상의 윌라 김씨는 75년에는 「GOOD TIME CHARLIE」로, 또 79년에는 「DANCIN'」으로 두번이나 수상후보에 올랐던 경력이 있다.

LA의 CHOUINARD ART INSTITUTE(현 CAL ART INSTITUTE)에서 미술을 전공한후 일자리를 우연히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상디자인화)으로 정한 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에 이르른것 같다고 웃으며 말하는 윌라·김씨는 뮤지칼 뿐만아니라 연극, 발레등의 의상디자인과 무대장치도 곁들여 하고 있다.

한인계로는 처음으로 토니상을 수상한 윌라 김 여사.

요즘은 특히 발레의상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다는 윌라·김씨는 10년전부터 시작한 발레의상의 최근 작품으로는 샌프란시스코 발레의 「템페스트」 제프리·발레의 「오르페우스」 등이고 아메리칸·발레의 금년시즌 작품도 디자인을 했다.

맨하탄 웨스트사이드의 250WEST 82ND ST.에 있는 나무와 그림들로 장식된 널찍한 그의 아파트가 작품의 산실이기도 한 윌라·김씨는 유럽에 있는 네델란드·댄스·씨어터의 작품의상도 맡고 있어 11일에는 유럽으로 떠날 계획인데 이 작품은 곧 뉴욕 메트로폴리탄 하우스에서도 공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윌라·김씨의 생활은 그러나 화려한 것만은 아니다. 무대의상 디자인은 시대배경, 작품해석, 인물성격파악등 디자인하기 전에 수집해야 할 자료도 많아 하루 12~15시간씩 일하는 날이 허다하다.

아직 한번도 한국에 가본 일이 없다는 김씨는 『기회가 있으면 꼭 한국에 가보고 싶고 한국 의상디자인도 해보고 싶다』면서 몇년전에 한국연극단체가 OFF BROADWAY의 LAMAMA에서 한국 고유의상을 입고 공연한 것을 매우 인상깊게 보았으며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김씨 작품중에는 유명한 발레리너 미하일·바리시니코프를 위해 디자인한 작품도 상당수가 있으며 무용잡지 표지나 달력등에서 흔히 많이 보아 눈에 익은 작품도 적지않다.

브로드웨이 작품 하나당 드는 의상비가 거의 20만달러나 넘는다는 김씨는 그러나 자기 작품의 의상은 절대로 팔지 않는다.

뉴욕에는 현재 작품때문에 살고 있으나 작가인 남편 WILLIAM PÈNE DU BOIS씨는 파리에 살고 있어 1년에 여러차례 유럽을 들르게 된다는 김씨는 나이를 묻자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슬하에 자녀도 없이 오직 작품생활에만 전념하고 있는 윌라·김씨는 1920년대에 이민온 부모중 아버지는 별세했고 어머니는 아직도 LA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적 출진(出陳)

—〈한국일보—토론토〉 발행에 부쳐

무릇 탄생은 가장 엄숙하고 장한 순간이다. 크기로는 하늘과 땅, 만물의탄생인 "창세"가 그러했고, 한해의 탕생인 새해 첫 새벽이 그러했으며, 하루를 여는 여명 또한 위대한 삶을 위한 시동(始動)인 것이다.

생명의 탄생은 더욱 승엄하다.

1981년6월1일 산성(産聲)을 올린 〈한국일보—토론토〉 역시 소리가 작은대로 알차고 보람다운 새 출발이라 자위하며 약동하는 맥박에 스스로 넘치는 의욕과 포부 함께 책임감 또한 막중함을 느낀다.

제한된 인원, 제한된 시간 안에 다람쥐 체바퀴 돌리듯이 매일같이 애독자들의 지적(知的)·정신적 식탁에 뉴스와 화제와 생활정보등 전력 다한 결정(結晶)인 진수성찬을 차려내야 한다는 것은, "사회의 거울이요, 목탁"이어야 하는 신문, "신속 정확"을 생명으로 삼는 것이 신문이라고는 하나 뻐근한 중압감이 앞선다.

새 이름으로 체모를 바꾸어 나가는 이 일간지의 특색은 아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①빠른 보도— 3일, 4일만에 한번씩 보도되던〈캐너더뉴스〉시대와는 달리, 매일 새로운 뉴스를 보도하는 신속성과 기동성이 그 첫째 특장이다. 따라서 오늘 일어난 보도거리나 사건등이 그날 저녁, 늦어도 이튿날이면 독자들의 손에 닿게 되는 잇점이 있다.

②또한 신속게재를 필요로 하는 광고주의 소망을 적시(適時)에 실현시킬 유리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 점이다.

③종전에 뉴욕 으로부터 제공 받아오던 〈한국일보〉를 서울로부터 직접 보내와 일간 발행과 더불어 현지에서 윤전기를 돌려 인쇄하니 그만큼 빨리 고국소식이 독자의 손에 들어가는 이로움이 있다.

④〈한국일보〉의 경우, 이제까지 독자들은 뉴욕의 광고를 접해와서 광고정보면에서 별 도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현지(캐나다) 광고들로 대치되므로 그 점 또한 고무적 변화라 하겠으며, 광고주들 역시 일간지, 특히 본국발행의 일간지에 광고를 싣는 흐뭇함과, 1주 60여면에광고를 배정하므로 지면 부족으로 인해 광고를 싣지 못하는 애로가 해소된 것이다. 아직 여러 여건이 충분치 못해 제작이 더디고 교민뉴스를 좀 더 싣지못하는 애로가 있지만 바야흐로 캐나다 최초의 한글판 일간지 〈한국일보—토론토〉는 역사적 제1보를 내디딘 것이다. 이것은 비단 제작진이나 관련자들만의 감격이나 기쁨이 아니요, 이땅 한인사회 통틀은 경사요 기념다운 장거가 아닐 수 없다.

이 엄숙한 순간에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하기는, 불편부당(不偏不党)하고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는 정론진필(正論眞筆)의 광장이 되며, 보다 빠르고 보다 바른 보도매체(報道媒体)가 될 것을….

독자 제현과 전체 교민은 아낌없는 박수와 사랑어린 채찍에 인색치 말아주기를 신신당부하는 바이다.

〈한국일보—토론토〉는 철저히 독자들의 것이다. 독자와 더불어 희로애락을 나누는 독자의 호흡이요 심장이기를 염원한다. 이것은 과거보다 더한 제작방침이다. 독자를 외면하거나 독자와 동떨어진 언론은 물을 떠난 생선이나 다름바 없기 때문이다.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일보 안내광고란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⑧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그는 그가 들은 소문에 의하여 시체가 발견되었을때 탐색자들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음식이 오직 릿즈라는 과자였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들이입고 있었던 옷은 바렌에있는늑대굴에서 발견됐고 그때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시무시했다.

단호하게 나는 흔비를내 마음속에서 지워 버릴려고 다시 지도를 펼쳤다. 갑자기 생각이나서 나는 존한테 타이렐씨가 보았다는이상한 에스키모들에 대해서 아는가 하고 물어보았다. 놀랍게도 존은 많이알고있었다. 물론 그가 알고있는 것이 모두 거친것이긴 했지만 그는 1920년대에 타이렐씨가 처음으로 내륙에 사는 사람들을 만났던카잔의 본부에서 멀지않는 키와틴바렌의 남쪽경계선에 설치된 미개지 무역소의성황기에 대해서 들려주었다. 털값이 올라갈때 이 구석진 무역소는 잘되었다. 700마일이나 되는 순전히 카누로만 올수있는 이 지역은 가장 가까운 물품구입소가 빠스 였었다. 그후모피시장이 붕괴하면서 이무역소는 충분한 이윤을 못 보게되어 모두 닫아버렸다

내륙 에스키모 들과의짧았던 접촉이 크리에스키모 여인과 결혼해서 살았던한 독일이민이 아니었던들 다시 끊겼을 것이다. 그는완고하게 독립된 자신의 무역소를 계속 열고있었다. 매년 불규칙하게 이사람은 바렌에스키모들과 접촉을 계속했으며, 그 자신이 거기에 없을때라도 자기의아들을 남겨놓고 수시로 그 사람들과 무역을 하게하고 덧을놓아 백여우를 잡아서 살아가게 했다는 것을 풍문에 들어 믿고있다는 것이다.

존은 지도위에서 윈더리버라는 곳에 버려둔 무역소가위치한 장소를 가르켰다. 이 강은 뉴엘틴레잌이라고 불리며 굉장한 물이 흐르는 강이다. 뉴엘틴은 거의 전설적인 곳이며, 1947년당시만 해도 조사되지 않고 대체로 알려져있지않았다.

지도위에 세밀하지않게 그어진 점줄로 보아서도틀림없이 상당히 큰 호수이고 적어도 120마일의 길이나 되어보였다. 삼분지일의 길이는 수림지대와 삼분지이의 길이는 바렌이휜히열린 평원속으로 북쪽을 향해 뻗고 있었다.

윈더버리 무역소가 있음을듣고난 후에 나는 뉴엘틴을 첫 목적지로 결정했다. 운이좋으면 아직도 거기에서 살고 있으리라고믿어지는 반인디언 반독일인인 그 젊은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얻어서 나의꿈을 실현시킬수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바렌을 도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어두운이야기에 내가 또 하나의 즐겁지못한 이야기를 보태줄른지도 모른다.

뉴엘틴은 그때 사리에맞는 선택이었지만 거길가자면 350마일의얼어붙은 평원을 어떻게 갈수있었는가가 문제였다. 나는 존보랏쏘를 동경하듯이 바라보며 얼마나그가 나에게부담을 시킬것인가 곰곰히생각해봤다. 그에게 물어 본다는것은 크게 포인트가없는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곧 봄의해빙이 닥쳐오리라는 경고 일기예보를듣고 체스터인렡으로가는 비행을 취소하고오는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북극의 봄에 해빙이 찾아오면 적어도 한달동안예외없이 모든 비행기는뜨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물어봐서 손해볼것은 없었다.

"존! 내일 뉴엘틴에 날좀 태워다 줄수없겠니?"하고 물어보았다. 그는 지도에서 눈을떼더니 한참동안생각을 하고는 "한번 해보자"하고 대답하는게 아닌가그는250달러 만요구했고그것은 바렌으로 가는값 치고는 엄청나게 싼 값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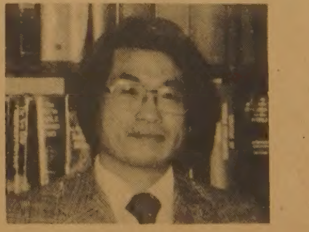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안손비행기를 정박시킨 이미 눈이녹아 질펀이는 이착륙용 호수로 힘차게걸어갔다. 처음 남쪽에서 떠나올때는 간편한 차림으로 여행하기좋게 왔었는데 처칠에서잠시 묵는동안 엄청난 짐이 돼 버렸다.

(계속)

한국일보
533—2363

부흥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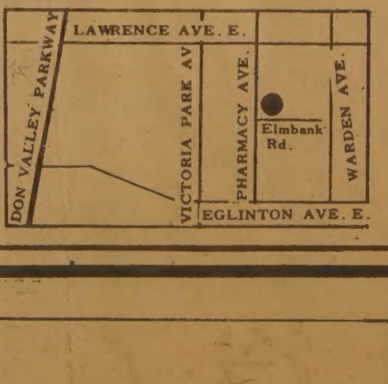
●강 사 : 이 진 태 목사
—서울대 문리대 졸업
—총회신학교 졸업
—미국 칼빈신학교 졸업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 졸업 (철학박사)
—총회신학교 교수역임
—현재 : 나성 오렌지한인교회 담임목사



●주 제 : 은혜와 진리의 충만●

신학자요 성공적인 목회자이신 이진태 목사님의 부흥성회에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 시 : 81년 6월19일(금)~21일(주일)
●집회시간 : 매일저녁 7시30분
●낮성경강해 : 토요일 오전10시
●장 소 : 토론토 제일한인장로교회당
963 PHARMACY AVE. SCARBORO, ONT.



토론토 제일한인장로교회
목사 김용출 (416) 755—1528

초대합니다

금번 본교회에서는 이기대 집사 장로 장립식과 홍순각 장로 취임식을 갖고자 하오니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일시 : 1981년6월21일(주일) 오후1시30분

●장소 : 토론토 제일한인장로교회당

●주소 : 963 PHARMACY AVE. SCARBORO. ONT.

●전화 : 755—1528

토론토제일한인 장로교회
당회원 일동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老人들 "일자리 願한다" 34%

한국갤럽、全國老人들의 생활실태·의식구조 調査

62歲때 "늙었다" 처음自覺… 할일없어 疎外感

"온家族이 함께 살기를 희망" 걱정은 健康·경제적 不安定

消日거리 TV·라디오가 고작

손자 出生때 가장 幸福感 느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자녀들과함께 살기를 바라며, 항상 「외로운 존재」라고 느낀다. 그들은 늘 근심걱정이 많고,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무엇인가 「할일」을 찾고있으나 일자리가없어 깊은 소외감에 빠져 있으며,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TV시청이나 라디오 청취가고작이다. 노인문제에대한 이같은 이슈의 제기는 峨山사회복지사업재단(이사장 鄭周永)이 현대사회의 가장특징적이고 심각한문제로 대두되고있는 노인문제해결을위해 전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를 조사한결과 나온것으로서, 이제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유사한 조사가운데 가장 본격적이고 광범한 사회조사 결과라는점에서 주목되고있다.

전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 조사는 峨山재단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소장 朴武益)에 조사를 의뢰, 한국갤럽은 전국적으로 60세이상의 노인 1천4백27명(남자 7백31명·여자 6백96명)을 무작위 추출, 지난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1대1의 개별면접을통해 답변을 얻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건강(43·8%), 경제적 불안정(40·8%), 사는보람이 없는것(7·6%), 가족관계가 좋지 못한것(6·5%)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노인의 34·4%(남자42·6%·여자27·8%)가 계속해서 취업을 희망하고있다. 이를 연령별로보면 60~64세가 47·8%, 65~69세가 42·3%이며 80세이상도 14·8%가 직업을 갖는것을 원했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돈이 필요해서」가 69·7%로 가장높고 다음이 「건강에 좋아서」(12·2%), 「일하는게 즐거워서」(8·1%)의 순이었다.

노인들은 또 83·3%가 자식들과의 동거를 희망하고있었는데 교육수준별로보면 고졸이상자는 61·9%, 無學은 87·4%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이와함께 노후에 자신들을 돌보아줄사람으로서 배우자가있는경우엔 아들(50·5%)、배우자(35·2%)、며느리(6·0%)、딸(2·2%)의 순으로 지적했으며 배우자가없는 경우에는 아들(60·8%)、며느리(17·3%)、딸(9·5%)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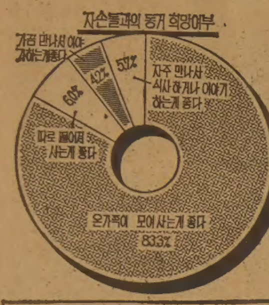
생활비마련에 대해서는 전체의 78·2%가 자식들로부터 보조를 받고있다고 대답했으며 「일을 해서 번다」가 21·8%, 「재산소득」이 5·5%의 순으로 되어있다. 노인들은 이상적인 생활비마련 방법에 대해 「가족이나 자녀부담」(49·4%)을 으뜸으로 바라고 있으며 다음이 「젊었을때 저축」(40·3%)、「사회보장제」(8·2%)의 순으로 지적했는데 「사회보장제」의 지적은 남자(10·5%)가 여자(5·7%)보다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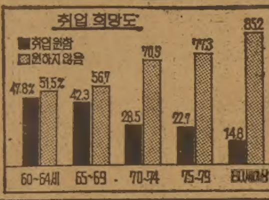
「현재 생활의 어려운 정도」에 대해 「어렵다」가 61·8%나돼 심각성을 드러냈는데 따라서 즐기는일도 TV시청이 69·9%로 가장높고 다음이 라디오청취(52·3%), 놀이(27·1%), 산보(20·1%), 여행(18·6%), 독서(12·8%)의 순으로 돈안드는 일에 중점이되어있었다.

노인들은 「가장행복했던일과 시기」를 거의 자식을 통해 느끼고 있었는데 「행복했던일」은 자녀나 손주탄생、자녀결혼을 지적했으며 그 시기는 「자신들의 결혼부터 자식을 키울때까지」로 들고있었다. 또 「불행했던 일과 시기」는 배우자가있는 경우엔 질병(11·4)、자녀 사망(9·7%)、가난한것(6·5%)의 순으로, 배우자가 없는경우엔 「배우자사망」(44·6%)、「질병」(37·0%)、「자녀사망」(12·1%)、「가난한것」(4·0%)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노인들은 노인생활의 시작기를 평균 62·5세(60세=45·0%, 65세=18·8%, 70세=15·3%)로보고 「자신들이 노인이다」는 자각빈도를 가끔한다(82·9%)고 답변하면서 이와 함께 「생활에서 외로움을 자주 느끼고 있다」(54·3%)고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지난80년말현재우리나라의 노인인구(60세이상)는 전체인구 3천8백12만명의 6·2%에 달하는 2백32만1천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增加率은 加速될 전망이어서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아세안 協力증진
레이事務總長 全대통령 訪問계기로"

本社 李成春특파원 印尼에

【자카르타=李成春특파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회의)의 나르시스코·레이사무총장은 8일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전망을 매우 밝다고 말하고 한국이 경제등 모든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할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필리핀사람으로 駐中大使를 지낸바있는 레이 사무총장은 이날 본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초 회원국간의 경제및 우호협력기구로 출발한 아세안이 동남아 지역정세의 변화와관련해서 회원국간에 정치와안보면에서의관심이 날로 증대되고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현단계로서는 아세안이 군사동맹화할 가능성은 전혀없다』고 말했다.

레이 사무총장은 이어 『이달하순으로 예정된 全斗煥대통령의 아세안 5개국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회원국 사이에 지금까지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되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및안정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하며 이같은 그의 순방외교활동중에 한국에 특사를파견, 자신의 외교활동결과를한국정부당국에 통고할것으로7일밝혀졌다.

美、한국에 修繕의뢰
"F4機·艦艇등 太平洋지역軍事裝備" 協商진행

【워싱턴8日=聯合】 미국방성은 F4 미항공기, 해군함정, 장갑차, 각종군사차량, 대포, 전자장비등 태평양지역에있는 미국무기와 군사장비의유지및 수선을 한국회사에 의뢰하는 문제를 두고 한국정부와 현재 협상중에있다고 한국방성 관리가 8일 말했다.

이국방성관리는 주로 馬山 공단 大邱 金海에 있는 한국회사들이 이청부를 맡게될것이나 그규모나 계약액수는 한미양국정부가 협상단계에 있어 아직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도 通告 헤이그 訪中결과

【워싱턴7日=聯合】 알렉산더·헤이그미국무장관은 오는10일부터 시작되는 중공방문에뒤이어 마닐라를방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외상회의에 참석한뒤다시 뉴질랜드 웰링턴을방문, 미·호주·뉴질랜드 3개국으로 구성된 앤저즈(ANZUS)…

아파트 房크기등 規格化
빌딩도 천장높이·계단 標準칫수로
資材·施工도 단계적 義務化

정부는 주택의 대량공급과 건축비의 절감을위해 표준칫수(尺度)에의한 주택의 설계및 시공제도를 도입, 앞으로 주택및 사무실빌딩을 설계할때는 표준칫수대로 방(사무실)의 크기나 천장높이, 계단등을 규격화시키고 자재생산및 시공도 단계적으로 의무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주택에관련된 표준칫수를 KS규격으로제정, 올해부터 각건설업체에 권장해 나가고 오는82년부터는 주택공사가짓는 모든주택(아파트)에 적용토록하는한편 다음단계에서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반영시켜 모든 아파트·연립주택·사무실용빌딩및 병원등 공동건물을 지을때의 무적으로 적용시키기로했다.

8일 건설부에따르면 표준칫수에의한 주택설계및 시공제는 공업화주택건설을 촉진하기위한것으로 덴마크 이탈리아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실시, 주택공급이나 건축비절감에 상당한 효과를거두고있으며 규격자재의 대량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주택산업을 보다 육성할수있는등의 잇점이있어 도입키로한것이다.

이를위해 지난3월중 전국의 1백6개기존주택(아파트및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방크기, 층높이, 천장높이, 계단의폭과 높이, 내부벽등 각부위에관한 기초조사를실시, 현황을파악한 바있는데 건물마다 규격이 달라 표준칫수, 적정 기본칫수, 표준주택의 평면계획안의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官民이 함께 물대기 작업
民과官이 한덩어리가 되어 가뭄극복의 값진 땀을 쏟고있다. 산을넘어온 송수관으로 양수기가 끌어올린 물을 논에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도랑을 파고있는 군청직원과 농민들. 【8일 慶南 密陽郡 下南邑 大司里=金海雲기자】

"軍裝備총동원 가뭄극복作戰"
周國防長官지시

周永福국방장관은 8일 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장비를 가용, 가뭄극복작전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周장관은 『각급 부대는 농민의 요청이있기전에 능동적으로 물이필요한 곳을 찾아서 지원하고 가뭄극복기간중 예비군훈련을 피하도록하라』고 지시했다.

뙤약볕아래 多段式 揚水작전
嶺湖南 보리베기 겹쳐 일손모자라 안타까와

【嶺南 한해현장=金善宗기자】 한방울의 물이라도 목타는 논밭에 대기위해 농부들은 휴일도 밤낮도 없이 필사의 양수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30도가 넘는고온과 함께 대지는 가속적으로 타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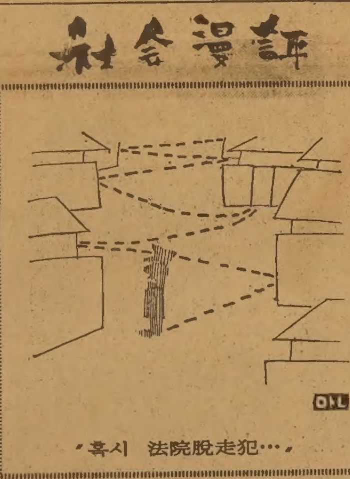
물이 있을만한 곳이면 다 파헤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농민의 힘만으론 한해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실개천은 이미 마른지가 오래고 비교적 큰 하천바닥도 4~5m씩 파들어가야 물이 솟기 때문에 포크레인등 중장비가 필요하다. 또 수㎞에 걸쳐 다단계양수를 해야 하는데 농가가 보유한 경운기힘으로는 역부족이다. 또 양수기가동이 장기화하자 농가마다 기름값조달이 어려워지고, 보리베기까지 겹쳐 일손도크게 달리는형편이다.

경북 永川郡일대는 琴湖江줄기가 흐름을 멈추자, 주민들이 곡괭이와삽으로 굴착작업을하고있으나 능률이 오르지 않고있다. 北安面 牛亭1동주민40여명은 하천서 5백여m떨어진 10여정보의 논에 모내기를하려고강바닥을파고 있으나 물이 흡족치 않아 관에 포크레인지원을 요청했으나 군내에 2대밖에 없어 발을 구르고있다. 이마을 주민 嶺海潮씨(54)는 『농가에서 자력으로 모내기할수있는 것은 수원이 마르지 않고 1~2백m거리안에서지 그 이상되면 관의 지원없이는 어렵도리가없다』고 말하고있다.

【全州=趙聖鎬기자】 全北지방은 가뭄해소에 총력전을펴고있다. 全北道는 그간 모내기 일 앞당기기운동을 벌여 8일 현재 70%의 모내기 실적을 올렸으나 농업용수가 계속달리자 8천3백대의 양수기를 동원, 河床굴착, 물샘파기, 打設管井등 자이用水源개발을 계속 서두르고 있다.

현재 全北지방의 貯水率은 저수지 2백20개소중 8개소가 완전고갈, 57%의 저수율을 보이고있고 小溜池2천9백43개소중 6백27개소가 고갈, 30%의 저수율을 보이고있는등 갈수록 용수가 달리고있어 가뭄이 1주일 더계속될경우 전체 농경지16만7천정보중 1만2천정보는 모내기가 완전 불가능할것이라고 道당국은 밝혔다.

社會漫評



'혹시 法院脫走犯…'

地平線

—한국일보는 新羅五岳에 대한 學術調査를 3年計劃으로 實施하기로 하였읍니다. 解放前後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歷史·考古·美術등 分野에 걸친 綜合的인 調査는…。64년 11월 12일字 한국일보 1면에 실린 社告의 첫 머리다.

▼新羅五岳이란 동쪽의 吐含山, 남쪽의 智異山, 서쪽의 鷄龍山, 북쪽의 太白山, 한가운데 八公山으로 新羅千年의 신앙과 호국방거점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五岳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유물발견이 보고되고 있을뿐이었는데, 그해에 창간10주년을 맞은 한국일보가 『斯界泰斗 및 權威들로써 本社가 委囑한 調査團』을 보내 새로운 조명을 시도한 것.

▼처음 八公山답사로 시작된 이 사업은 67년5월 三國統一의 英主 文武大王의 水中陵寢인 大王岩을 발견함으로써 절정에 올랐다. 당시의 조사단장이던 金庠基박사가 『해방후 가장 값지고, 경사스러운 발견』이라고 감격한것은 과장이아니었다。정부는 곧 大王岩을 史蹟으로 지정했고, 이제는 大王이 남긴 「化龍防倭」의 호국정신을 모르는 이가 없다.

▼五岳조사사업은 이듬해 新羅三山 조사로 이어졌다. 三山은 慶州의 狼山、淸道의 穴禮、永川의 骨火등. 71년까지 진행된 合조사는 斷石山의 金庾信장군 수련도장을 비롯한 花郞유적, 우리나라 최초·최고의 兩面碑인 菁堤碑를 발견하여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장장 8년에 걸쳐 『적지않은 經費를 들여』 진행된 五岳·三山조사사업은 國史재정립의 點火役이었다.

▼아마, 신문이 집안애기를 할수있는 것은, 한해 한번 창간기념일만의 특권일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일보가 창간27주년을 맞는 오늘아침, 三山·五岳을 회고함은 그저 자랑을 늘어 놓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 꽤보였던 다양한 文化開發 노력의 계승을 다짐하려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창간기념일을 조용하게 「中原文化圈」의 유적조사를 특별 후원하고 나선 것도 그 전통의 한面이다.

▼忠州댐 건설로 水沒을 앞둔 「中原文化圈」은 三國爭覇의 옛터로, 南漢江 기슭의 先史유적들로 해서, 사학계의 새로운 관심을 모으던 고장이다. 76년의 安東댐, 작년의 大淸댐준공으로, 숱한 문화유산이 손쓸틈없이 사라졌던 일을 생각하면, 이번 유적조사의 뜻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신문은 아무도 이용할 수 없다』는 是是非非의 창간社是와 함께, 文化學術에 폭넓게 기여해온 전통은, 한국일보 모든 종사원은 자랑스럽게 이어 갈 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78
은 : 온스당
US 10.8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교포
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여러분의 삼복식품

한번 와 보세요.
또 오시게 됩니다.
왜냐구요?
삼복식품점은
첫째 : 친절하고
둘째 : 정직하고
세째 : 물건이 싱싱하니까요
그리고 만족한 쇼핑을 하고 돌아가시게 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여름철 식탁준비는 친절하고 정직한
삼복식품점으로……

①	물오징어 BOX당	$12.95
②	조기(굴비용) BOX당	55.50
③	물미역 BOX당	44.50
④	미역줄기 BOX당	44.50
⑤	당 면 BOX당	120.00
⑥	냉 면 BOX당	45.80
⑦	이면수 1 lb당	2.95(½price)
⑧	삼 치 1 lb당	2.25(½price)
⑨	한국산고추가루 1 lb당	3.45
⑩	한국산동태 1 lb당	1.25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전화 : 743-8270

社說

韓半島擧論 進展있길
—關心큰 헤이그訪中과 北京의 對韓認識

아시아·太平洋地域 각국의 폭넓은 關心을 모으게하는 가운데 10일부터 알렉산더·헤이그 美國務長官의 中共 방문이 시작된다. 이어 마닐라를 방문하여 아세안(東南亞國家聯合) 外相會議에 참석하고나서 웰링턴에서 열리는 앤저스(美·濠洲·뉴질랜드 3국同盟) 會議에 출석하리라는 것이다. 그는 이巡訪外交중 韓國에 特使를 파견하여 이번外交활동결과를 통고·설명할 예정이라는데 重點이 中共과의 접촉 내용에 설정될것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널리 알려진바와같이 헤이그長官의 이번 亞·太巡訪의 主眼은 蘇聯팽창주의의 南進을 위협에 대처할 防波堤를 구축하면서 이地域국가들의 협력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레이건行政府의 새 發足에 즈음한 美國의 安保결의를 천명하고 나아가서 「신뢰할수있는 盟邦」다운 公信力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時宜適切한 外交的布石이라고 평가되지만, 저간에 周邊國간의 한결같지않은 착잡한 反應이 교차되고있음을 본다. 레이건 大統領의 公約事項이기도 했던 自由中國(臺灣)에 대한 關係改善 내지 軍援再開기운으로 한동안 美·中共관계가 불편했었는데, 美國은 이번에 헤이그長官의 北京방문을 계기로 對中共 軍事技術협력문제를 긍정적 방향에서 재검토하게될 조짐을 감추케한다.

또 韓半島문제의 擧論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美國의 새行政府는 이미 全大統領의 1·12提議에 대한 支持, 그리고 韓國의 참여없는 對北傀직접 협상의 排除등에 걸쳐 기본立場을 분명히 한바있다. 한편 中共은 美國의 臺灣政策에 制動을 거는 동시에 레이건行政府의 對蘇强硬자세를 높이 평가하며 주저없는 협력用意를 표명하는 實情이다.

北京의 立場과는 대조적으로 모스크바의 부정적 反應에 장단을 맞추려는 北傀의 신경질적인 반발이 두드러지고있다. 이 사실은 北京當局이 결코 안이하게 자과할바 아니라고 관측된다.

韓國의 立場은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염원하는 基調위에 南北韓의 對話와 交流를 발전시키는 延長線에서 종국적으로 平和的統一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또 美國과 더불어 北京當局도 巨視的으로 그 國家利益과 國際的座標를 냉철하게 省察한다면 영향한 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려고한다. 北傀측에 一邊倒한 中共의 종래 韓半島政策이란 이미 지나간 蘇·中共蜜月時代의 非現實的인 잔재이며 舊時代의 遺物이고 오늘날 中共자신의 外交的實益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무만간 是正이 불가피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美·中共간의 새 北京會談을 지켜보는 우리의 주요한 關心은 蘇聯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東北亞安保의 발전적 存在樣式, 南北韓對話의 무조건적 소통을 위한 側面支援 방책등에 더하여 中共의 對韓認識자체의 成熟度에 쏠리게 마련이다. 狀況이 요청하는 객관적 論理에대한 政治的 洞察力의 진전 여부를 헤이그長官의 北京訪問결과의 설명에서 듣고싶다는 것이다.

이해에 접어들면서 때를 같이하여 韓·美양국의 新行政府가 出帆한것을 계기로 韓·美관계는 매우 良好하다. 그리고 駐韓美軍의 존재는 韓國자체의 防衛力증강과 더불어 이 世界戰略의 要衝에서 情勢를 安定化시키는 긍정적要因으로 되고있음이 명백하다.

持續性있는 安保政策의 軌道부설을 환영하면서 北京當局 또한 구각을 탈피한 새時代의 現實認識에 투철해 마땅하리라는 巨視的 期待可能性을 강조해 마지않는 바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平和的統一의 未來像에는 이祖國으로 하여금 國際社會의 紛爭地域이 아닌 平和地帶로 轉變되게 해야 한다는 當爲性이 포함되어있다.

物價安定에 밝은기미
—下降連動制도 考慮해볼일이다

物價가 安定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또 地球上에서 물가를 安定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는 政府도 없다. 심지어 지난 10년동안 세계 물가폭등의 主要 원인으로 꼽히는 石油의 輸出國들마저 그들이 油價를 올리는 것은 기름값 代錢으로 수입하는 대부분 先進國들의 工産品가격이 騰貴하였기 때문에 할수없이 그러는것이라고 그 이유를 내세우곤 하는 것이다.

당국이 발표한바에의하면 금년들어 5월까지의국내물가는 특히,소비자물가에서 작년의 같은기간보다는 훨씬 安定되었음을밝히고있다.작년중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28·7%나 등귀하였다. 국제통계에 따르면 같은해 우리나라보다 소비자물가가 더 높이 뛴 나라는 이스라엘(1백31%등귀)·아르헨티나(1백·8%)·브라질(82·8%)·우루과이(63·5%)·페루(59·2%) 외에 볼리비아·자이레·칠레·탄자니아·유고슬라비아(이상 제국은 47·2%에서 29·9%등귀)였으며 이밖에도 아직 지수통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그룹가국들이 몇몇 더있을것이다.

어느쪽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물가등귀가 심하더라도 시민의 소득이 그보다 더높은 비율로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볼때 물가 등귀의 고통은 별로 없다. 그러나 작년의 우리경우처럼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도 물가등귀가 심할때에는 그 괴로움은 배가된다는것이다. 작년중 우리나라의 총 민간소비지출은 재작년보다는 27·4%만큼 늘어났으나 돈가치가 떨어진것을 고려한 실질지출액은 도리어 1·1%가량 줄어든 것이었다. 人口가 1·6%정도 늘어났음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작년중의 국민1人당 소비지출감소율은 2·7%나 될 이치인것이다. 지내놓고 되돌아보면 우리가 용케도 견디어냈다는 생각이다.

당국이 밝힌바 지난 5월하순까지의 소비자물가는 이미 보도된대로 작년의 같은기간과 비교해 볼때에 등귀속도가 둔화되었으니 제발 이 추세가 앞날에도 계속되었으면 한다.

지난 1·4분기의 경제활동(생산)도 미미하나 작년 동기보다는 좋아졌으며 2·4분기 이후는 그 추세가 이나마 더 좋아질것으로 내다보이므로 그만큼 사태는 개선되는것으로 판단되는것이다.

소비자의 처지에서볼때에는 물가가 덜 오르거나 전혀 오르지 않거나 또는 하락을 나아가서는 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앉아서 돈버는것과 같은 利得을 보는 것이다. 어떻게하여 그런 局面을 이룩할 것인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이를 위한 노력은 그와같은 밝은 局面을 창조하는 일에서 주요한 몫을 할것임에 틀림없다.

8일에 기업간부들이 모여 全國生産性向上촉진대회를 열었는데 기업들이 경영합리화·시설근대화·기술개량·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勞使和合에 힘쓰면 생산성을 높여서 국민소득을 올리고 물가등귀를 더욱 누그러뜨릴수있는것이다.

작년중 국내생산자 가격등락에 43%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한 輸入物價는 대충 27%나 등귀하였다. 油價와 換率등이 그 主因이었을 것이다. 油價는 年末 현재로 36·3%나 뛰었던 것이다. 輸入者와 生産者의 이에 따른 어려움이 컸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들에게 제발 物價安定을 위하여 더 노력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소리가 매우 요란한 것이다. 특히 수입상품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非一非再한데 오를 때에 열중하는 값은 연동성과 온도로 내리는데도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점에서 당국자나 기업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여지는 넓다고 보는것이다.

獨島경비 27돌 한국일보와 同甲

갈매기 벗삼아 領土수호
日의 常習트집 아예默殺
漁民보호의 상징…颱風땐 온섬이 波濤휩쓸려
밤을밝히는 使命感도 함께

◇동해의 끝섬 독도에 태극기가 게양되고있다。올해로 주둔 27주년을 맞은 독도경비대는 어느사회 구성원보다 사명감에 불타있다。

동해의 동쪽끝 독도(獨島)。망망대해에 우뚝솟아 갈매기소리만 들리는 외로운섬。이 절해고도를 우리 나라경찰이 경비하기 시작한것이 올해로 꼭 27주년이 된다。

일본측에서 툭하면 이러쿵 저러쿵하지만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에는 논란의여지가 없다。멀리는 신라중흥기와 세종8년(1426)부터 기록으로 남아있고 성종2년(1471)金自知의 발견기록이있으며 가까이로는광무4년(1900) 관보 (칙령41호 2조)로 명시했고 정부수립후에는 1952년 1월 18일 정부에서 주권을 선언했다。이 독도에 경비가 시작된것은 1954년。당시 洪淳七씨 (54) 등 鬱陵출신 재향군인 20여명이 자체경비를 시작한것이 효시였다。洪씨등의 독도 경비는 전년도인 53년 독도에 영토비가 건립된것을 계기로 『우리영토는 우리가 지킨다』는 결심아래 수비를 시작했던것。그러나 무인도인 독도에 별다른 장비도없이 경비를 계속한다는것은 어려움이 많아 그후2년만인 56년4월8일부터 경찰이 진주、상주경비를 떠맡아 오늘에 이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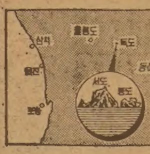
독도경비27년에는 곡절도 많았다。연중 나 평균 초속12m의 강풍이 불고 태풍이라도 불때면 섬전체가 파도에 휩싸인다。이러한 환경속에서 독도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사명감이 앞서지않으면 해낼 수없는일。

독도경비는 27주년을 맞으면서 크게 성장했다。총인원 12명이 밤을 낮삼아 경비근무를 계속하고있는데 숙박, 통신장비등이 현대화됐으며 태양열발전기도 설치될 예정이다。독도는 자립과 어민보호의 상징이다。

東島와 西島로 나뉘어있는 독도는 무인도이지만 섬특유의 식물과 미역、전복、새우、소라、잡어등으로 유명한섬。

그러나 기암괴석과 절벽이 말해주듯 억겁년을 견디면서도 의연한자세로 우뚝서있다。지난 65년에는 西島에서 유일한 생명수인 샘물이 발견돼 자립의 의지를 한층 굳혀 갈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어민들에게는 따뜻한 종속잡다。원양어업을나갔던 어선들은 독도가보이면『다왔구나!』하고 안도의숨을내쉬며 연안에서 오징어잡이를하던 어선들도 태풍을만나면 대피할수있는곳이 독도뿐이다。



독도는 밤을낮삼아 사는 조자신문과같다。사면을둘러싼 바다에 어둠이깔리기 시작하면 등대에 불을켜고 밤새도록 동해를지켜 새아침을맞는다。괭이갈매기로도 유명한독도의 가장큰문제는 식수。천연수를 받아 정수、보관해 놨다 식수로 사용하지만 요즘처럼 가뭄이계속될때는 부족하게 마련이다。

지척지간인 동도에 샘물이 있지만 풍랑이 일면 가져오지못해 있으나 마나한 형편。때문에 소나기가 오면 비누칠을 하고 샤워를 하는것이 가장 즐겁고 유일한 낙이기도 하다。【獨島에서 具用書기자】

全大統領、아세안巡訪앞두고 政黨대표 청와대招致간담회
빠르면 今週중、國政전반 意見교환

정부와 民正黨은 全斗煥대통령의 아세안 5개국 巡訪을 앞두고 각 정당대표를 청와대로 초치、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고위소식통은 8일 외교·안보문제는 超黨的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에따라 정부·정당의 수뇌회동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그 시기는 오는20일 하와이 東西문화센터에서 있을 柳致松 民韓黨 총재의 연설일정등을 감안하여 빠르면 금주중, 늦어도 내주중에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이 소식통은 이어『이번 모임에서는 全대통령의 아세안 5개국巡訪을 비롯 6·5제의에 대한 배경설명과 당면한 國政전반에 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지난 2월20일 靑瓦臺 간담회의 경우와같이 全대통령이 정당 수뇌들을 靑瓦臺로 초청하는형식이될것같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구체적인 참석범위와 날짜는 현재조정중인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國軍 모범勇士66명 全대통령、接見격려

全斗煥 대통령은 8일하오 청와대에서 국군 모범용사66명을 접견하고 다과를베풀며 격려했다. (사진) 이자리에는 육군에서 車선정상사등 45명、해군에서 李우길상사등11명、공군에서李구복상사등10명이 참석했으며 周永福국방、3軍참모총장등이 배석했다.

사우디·蘇비밀交涉
復交위해…40여년만에 처음

【뉴욕7日聯合】사우디아라비아와 소련은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직전 파기된 양국간의 외교관계 회복문제를 시리아 쿠웨이트를통해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은밀히 교섭중이라고 서방외교소식통들이 7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미국의 대사우디 조기공중경보통제기(AWACS)및 기타 현대무기판매계획에 역효과를미치지않도록 사우디가 이같은 접촉을 비밀리에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5分間 인터뷰

우호親善바탕은 相互이해에
安井謙 韓日의원연맹 日側회장
"한국側 새議員많아 먼저 얼굴익혀야"

◇安井謙 회장

【東京8日=宋孝彬특파원】韓日양국의 국회의원이 중심이된 친선단체인「韓日議員연맹」이 한국측과 함께 일본측도 임원을 선출、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1년반만에 새 출발을 하게됐다。

일본측은 3일 집권自民黨과 民社黨소속 한일의원연맹 회원이 총회를 열고 회장에 야스이(安井謙) 前참의원의장겸 자민당최고고문을 선출하는 한편 회장직무대행에 가스가·잇꼬(春日一幸) 민사당고문을, 간사장에 모리·마쓰헤이씨(毛利松平)를 유임시켰다。

한일의원연맹은 22일東京에서 합동간사회의 개최일자와 운영방침등을 협의, 본격적인 궤도진입을 서둘 방침이다。

1950년 東京에서 참의원으로 당선된이래 계속 6차례 연속당선한 야스이 새회장 (69)은 8일 韓日의원연맹과 한일우호에 관해 다음과같이 견해를 피력했다。

—한일의원연맹이 새진용으로 개편、새출발을 하게됨으로써 앞으로의 운영방침에 변화는 없는가。

▲한국측은 대폭 개편됐으나 일본측은 크게 바뀐것이 없다。후나다·나까 (船田中) 회장의 별세로 가스가·잇꼬民社黨고문이 의원연맹회장직무대행을 맡아왔으나 마땅한후임자가 없어 계속 공석으로 있었다。

후꾸다 (福田) 前수상과 같이 고문직을 맡고있던 본인이 이번에 빈자리인 이 회장직을 맡게됐고 간사장도 모리의원이 계속 유임됐으며, 부회장에 사꾸라우찌 (櫻內義雄) 자민당간사장등 4명을 추가 보완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폭넓게 한일양국의 우호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우호친선의 바탕은 상호이해에 있으며 공통된 이해증진을 위해 우선 知面을 넓혀야한다。

제5공화국의 출범으로 한국측 진용이 모두 바뀌어 서로 친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것으로 본다。

—과거의 한일의원외교는 「아니까 (兒知)외교」라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무엇을 「아니까외교」라고 지칭하는지 잘모르겠으나 그만큼 한일의원간의 친선이 두터워졌다는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흉허물없이 상호양국의 이해증진을 위해 서로협력할수있는 분위기를 지칭하는것이라면 좋다。

우선 22일 東京에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에서 서로의 얼굴을 익히는데부터 시작하여 한일의원연맹의 운영방침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방침이다。

한일의원연맹은 72년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가진이래 한국의 6·23선언에대한 지지와 주한미군철수반대및 보완조치의 촉구등 안보면에서 한일양국의 공통된 인식을재확인해왔다。

앞으로도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한 친선단체는 양국의공동번영을 위해 힘써야 할것이다。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해 한일친선협회、한일의원안보협의회、한일경제협의회、한일협력위등 5개친선단체가 있다。이를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가。

▲민간경제단체인 한일경제협의회와 순수민간친선단체인 한일친선협회등 각기의 기능에따라 발족된 것이므로 구태여 통폐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기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운영이 문제이다。

—金大中문제등의 일단락으로 한일양국관계는 정상화되고있다。기본적인 한일관계의 자세는?

▲적어도 정부와 정부간의 우호친선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불편했던 한일관계란 일부 매스컴이 떠들어대 만들어진것에 불과하다。

한일관계는 唇齒의 관계로 떨어질수 없는 상호보완관계에있다。

—한국의 對日무역赤字는 매년 증가되어 30억달러가 넘는다。이에대한 해소책은?

▲한국측이 기계류의 시설투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늘어난것으로 알고있다。이는 국제수평분업과 교역량의 증대로 시정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무보트와 뇌수경 그리고 스포츠용으로 北韓에 수출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對南무장간첩용무기로 사용하고있다。禁輸3원칙에 따라 북한에 전략물자수출은 일본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對북한 전략물자수출은 금지되어있다。무엇이 무기인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실제로 일본에서 레저용으로 수출된것이 對南간첩용무기로 둔갑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수출을 자제해야 할것이다。

—全대통령의 1·12제의및 6·5제의와 남북통일문제에대해。

▲남북한 통일문제는 한국측이 제의한대로 평화적인방법에 의해 통일돼야한다고생각한다。

남북수뇌간의 상호방문과 회담을 제의한 1·12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현실적인 방안부터 실시하여 남북상호간의 긴장완화를 도모해야한다。

한국은 제5공화국의 새출발로 정치가 안정돼가고 경제도 차츰 과도기의 진통기를 지나 기필코 안정되어 다시 고도성장이 계속될것으로 기대된다。

政局往來

◆李澤과 天安간의 거리는? …원은 8일 靑瓦臺 간담회 정당대표들의 …에대해 『아직 …』 …없다』고 일단 부인。

그러나 李대표는 『柳致松民韓총재、金鍾哲국민총재와 合席한적도 있고 …한번 만난적도 있다면서 『단나게된다면 柳총재가 미국에 가기전이라야 하니 15일이 전이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표는 『최근 李澤(柳총재고향)과 天安(金총재고향)사이가 얼마나 가까와졌는지 모르겠다』면서 3·25총선기간중 舌戰을 벌였던 두 야당총재의 和解에 대한 궁금증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기도。

◆試行錯誤없는 完治요법써야…국회농수산위 擧黨지역 全北답사반은 7、8일 이틀간 道內 13개郡중 한해피해가 큰 8개郡지역을 강행군、河床굴착、물샘파기、다단계揚水와 打設管井동 평야와 산간지방의 갖가지 揚水작업현장을 둘러보고 한해복구에 땀흘리는 농민들에게 揚水機와 격려금을주며 격려。

趙尙來의원(民正)을 반장으로한 5명의 시찰단은 道·郡에 들러 한해대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추적했는데 답사반은 趙徹權全北知事로부터 『全北지역이 南部의 다른지역보다는 피해가 덜하고 道당국이 몸장기화를 예상、10일 앞당겨 모내는등 대책을서둘러 피해를 최대한 줄였다』는 말을 듣고는 다행스런 표정을 짓기도。

같은 金堤·扶安출신인 趙尙來의원과 金珍培의원(民韓)은 『補給水개발에 역점을 두는등 貯水·揚水

"가뭄뒤엔 洪水경험…차제에 홍수對策도"

을 버려달라』고 당부。…… 가뭄뒤에 차제에 홍수대책까지도 갖추어야한다』고 촉구。

民正黨의 郭定鉉의원과 民韓의 吳上鉉、姜普性의원은 정부지원비의 용도를 캐물으면서『상습한해지역인 산간지대등의 경작지는 발으로 作하는등 代替방안을 시급히 강구하고 항구적 시설을 갖춰 더이상 試行錯誤를 되풀이 하지않도록 完治요법을 써야한다』고 강조。【全州=趙聖鎬기자】

◆民韓、野黨史上처음 사업계획작성…民韓黨은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바빴던 과거와는 대조적으로 野黨史上 처음 금년하반기 局別사업계획서를 작성 브리핑 차트까지 만드는등 異色풍경。

8일상오 국장단회의직전 기획실장 趙桂衡의원)로부터 2억6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보고받은 辛相佑사무총장은 『당초 各局別로 세운 사업계획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6억9천만원이었으나 기획실이 이를 조정、4억2천8백만원을 삭감했다』며 『앞으로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조정하여 실용예산을 편성케될것』이라고 설명。

辛총장은 『民韓黨이 중점을 두어 실시할 사업내용의 大宗은 당원훈련비、정책입안을위한 조사연구비、對民봉사및 근로지원비、여론청취를위한 民願상담실 운영비등』이라며 『당무회의에 사업계획내용을 일단보고한후 다시 총합적 최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의 국·장단회의에는 난2일 임명된 部·次長들도 모두 참석、相見禮를했는데 辛총장은 『비하오만되면 黨舍를 비우는 습관을 버려달라』고 당부。

블로아 & 베다스트 하드웨어

• 가정용 살림도구(부엌)
• 각종 전기제품 수리및 판매
• 유리 (가구, 상점용)
• 각종 철물및 PAINT
• PLUMBING 제품
• 기 타

변 의 섭
☎ : 531−6183 608 Bloor St.W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 환영

디자이너 MR. 김

606 BLOOR ST.W.
☎ : 535−4441

➤한국인의 바디 샵

Master Auto Bo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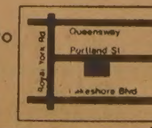
저는 15년의 경험과 캐너더 정비사 자격증을 소지하였읍니다. 오시는 손님에게 기계적 분야를 무료 상담하며 체크도 해드립니다.

• 사고 보험관계 일체처리 !
• 교포여러분께 특별염가봉사
• A급 BODY MAN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 (OVEN BAKE FINISHES)
• 수리중 자동차 대여
• 무료견적
• 사고차량 픽업 서비스

전 기 덕

95 Portland St. Toronto

Bus. 255-2111
255-1000
Res. 231 2822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4 AM
토~일 :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미국 이민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 이민쿼터제
● 노동허가법
● 학생비자발급
● 그외의 문제등, 또한 지금 어떠한 종류등 이민수속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신분

위와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화나 편지를 주시면 뉴욕에서 다년간 이민법에 종사하신 미국인 변호사 ROGER C. ALGASE(알게이즈 씨)에서 좀더 알기쉽고, 자세히 성의껏 답해 드립니다.
사무실엔 항상 한국인 보조원이 계시어 불편없이 도와 드립니다.

연락번호 : (212) 762−5100
연락주소 : 136−31 ROOSEVELT AVE. Suite #2
FLUSHING, N. Y. 11354

Montreal Trust
REAL ESTATE DEPARTMENT

안녕하십니까?
해밀톤에서 전과다름없이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읍니다. 바로 토론토 근교인 해밀톤에 아직도 싼 값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세요.

① 3베드룸, 2층독채벽돌집, $33,900, $5,000 다운
② 2베드룸 아파트가 6개 있는 3층벽돌집 $72,900, $10,000다운
③ 버라이어티 가게와 아파트 3개 있는 2층벽돌 건물, 비지니스 포함하여(주매상 $4,000) 139,000+스타 Try5만 다운
④ 버라이어티 가게(주매상 $6000)+ 2층건물(아파트 2개) $219,000+스타
Vacant Lot For Parking
버라이어티가게(주매상 $3500)
건물포함(2) $98,000
버라이어티 가게(주매상 $4,000)
건물도 구입가능

140 CENTENNIAL PARKWAY NORTH
HAMILTON, ONT.

전 병 호

560−1882, 662−4705, 662−7609

이스라엘, 이라크原子爐 폭격

政府발표 核彈생산못하게 完全파괴

이라크의 시리아支援公言이 불씨 中東사태 重大危機

【예루살렘8日UPI·AP聯合=本社特約】 이라크원자로에 대한 이스라엘의 奇襲의폭격으로 中東사태는 더욱 확산의 위기로 치닫아 심각한 국면을 맞게됐다. 친이스라엘국가인 이집트는 이라크원자로공격은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맹렬히 비난했다. 미국무성은 「심각한 사태발전」이라고 우려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지난7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부근의 원자로를 폭격, 『완전하게파괴』했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특별성명을 통해 8일 발표했다.

이발표는 『지난 7일 이스라엘 전투기가 출격, 바그다드부근의 오시라크원자로를 공격했다』고 말하고 『파일럿들은 그들의 사명을 성공리에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으며 원자로는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바그다드는 1천㎞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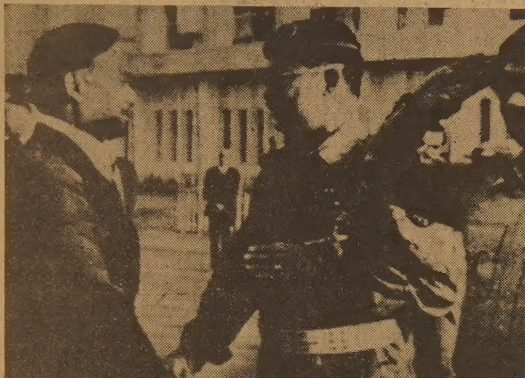
성명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라크가 원자탄제조를위해 전립한것이었다』고 말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시라크원자로의 설치과정을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원자로는 프랑스제70와트짜리다. 성명은 이라크가 앞으로만들원자탄의목표국은 이스라엘이라고 강조했다.

샘미사일의 레바논내 배치를 둘러싸고 야기된 레바논사태이후 이라크는 공공연히 시리아에대한 군사적지원을 약속해왔다.

이스라엘의 이라크에 대한 노골적 공격으로 중동에서의 긴장은 한층확대될조짐이다.

印度, 列車추락 2千餘名 死傷

【뉴델리7日UPI=聯合】 5백명이상의 승객을 태운열차가 6일 뉴델리 동남쪽 9백60㎞의 비하르州都 파트나市의 한철교에서 강으로 추락, 최소한 5백명이 익사하는 지난1917년이후 세계최악으로 추정되는 대형열차참사가 발생했다고 인도UNI통신이 7일 보도했다.



◇暗殺직전의 라만과 만주르 지아 우르·라만前 방글라데시 대통령(左)이 지난달 29일 치타공공항에 도착 수사간후 그를 암살한 만주르와 악수를 교환하고있다. 【대카7日AP聯合】

인도동부에서 발생한 열차사고의 사상자수는 2천명이상으로 세계최대의 참사라고 뉴델리의 영자지 타임즈·오브·인디아紙가 8일보도했다.

中東사태 자극 런던金값 폭등

【런던8日UPI=聯合】 런던시장의 금시세는 8일 이스라엘공군기에의한 이라크원자로공습소식이 전해진 직후 온스당 13달러50센트가 뛰어오른 4백73달러로거래되었다.

揮發油판매전 본격加熱 湖油CX3에 油公뉴슈퍼맞서

휘발유판매전이 본격화되고있다. 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湖南精油가 신제품 CX3을 판매하면서 광고전을 벌임에 따라 이에대응, 石油公社는 9일부터 뉴슈퍼란 신제품판매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油公관계자는 湖油의 CX3이 종전의 휘발유와 차이가 없는것인데 비해 뉴슈퍼란 휘발유는 옥탄가를 높여 경제성이 높고 강력한 힘을 내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아리 — 印度의 大慘事

외신은 6일 인도에서 열차가 강으로 탈선, 추락하여 5백명 이상의 익사자를 내는 참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뉴델리 동남쪽 9백60㎞의 「비하르」주도 「파트나」시의 한 철교에서 기관차를 포함, 9량의 열차가운데 7량이 탈선하고 5량이 물속에 잠겼다는 얘기다.

사고가 있은 직후 헬리콥터와 해군잠수부등으로 구성된 긴급구조반이 출동했으나 75명의 부상자를 구출하고 64구의 시체를 건지는데 머물렀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구조작업이 부진했던것은 최근의 장우로 강물이 불어 수심이 22.5m에 이르고 거기에 물속에서 앞뒤를 가리지 못했던 탓이라 한다.

불과 달포전에 경산에서 크게 열차사고를 치렀던 우리로서는 1917년 세계최악의 열차사고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5백43명이 몰사했던 군용열차참사 이래 가장큰 이번 인도열차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수가없다. 인도열차사고사상 최악인 이번 참사도 지나고 보면 사전에 능히 예방될수 있었는데 몇가지 이유들이 겹쳐서 참사로 이어졌다는 소식이다.

이를테면 철교의교각이 근래의폭우로 일부 내려앉은데다 그 철교위를 인도인들이 신성시하는 소가 거닐고있어 이를발견한 기관사가 급정거를했던데서 열차가 균형을잃고 추락한 가장큰 원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순간에 돌풍이있어서 탈선까지 부채질한 꼴이되었으며 거기다가 객차가 만원이었던 데다 차량지붕위에도 승객이 올라가있었다니 엎친데 덮친 격이었다. 물론 기관사나 승객이 좀더 원칙을 지키고 사려깊게 규칙을 따랐던들 유례드문 비극은 사전에 예방이 되었을것이다.

멀리 인도의 열차사고나 가까이 우리의 경산사고나 따지고 보면 불가피했던 불상사가 아니라 인재의 느낌이 짙다. 다시금 경산열차사고와 같은 비극과 참사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멀리 인도의 열차대참변을 남의 일로만 알것이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안전운행과 수칙준수에 더욱 힘써야 하리라 믿는다.

反革命세력 強硬조치 要求

蘇、波에 최후通牒說…蘇軍배치可能性커

브레즈네프親書 '波指導者들은 言論통제력 상실'

【바르샤바7日AP聯合=本社特約】 소련은 폴란드공산당 지도자들에게 폴란드의 반혁명분자들에 대해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엄중한 내용의 경고서한을 보내왔다고 바르샤바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7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소련이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9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폴란드 공산당중앙위원회앞으로 이 서신을 보냈다면서 이는 폴란드 사태발전에 관한 소련 보도기관들의 최근논평을 반영한것으로 폴란드 공산당의 통제력상실가능성에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밤 로이터·AP·AFP등 3개통신사의 바르샤바지국에는 폴란드의 공산주의노선보호를 위해 소련군의 폴란드배치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이 폴란드지도층에 전달됐다고 주장하는 익명의텔렉스메시지가 수신됐다.

폴란드 위기11개월동안 최초로 서방통신사들에 보내진 익명의 메시지내용은 그러나 즉각 확인되지않았다.

이 메시지는 6일의 폴란드공산당정치국회의에서 폴란드공산당및 정부의 신뢰성 실추와 관련, 폴란드의 가장 중요한 병참분야에서 이웃국가들의 병력을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최후통첩이 검토된것으로 믿어진다고 주장했다.

메시지는 폴란드 공산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가 9일 긴급소집되는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르샤바8日AP聯合=本社特約】 폴란드黨중앙위원회는 8일 소련 브레즈네프서기장이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이름으로 폴란드정치국으로 보낸 친서를 받았다고 바르샤바의 정통한 정보소식통들이 8일 말했다.

이 정보소식통은 소련공산당은 『폴란드지도자들이 반사회주의의 지원을 받고있는 언론의 통제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했다』고 비난했으며 폴란드 당제1서기 카니아를비롯, 7명의 지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발했다고 말했다.

바티칸 中共의 握手

탕大主教임명…25년不和 해소

敎皇의 中共방문 계기마련돼

【바티칸시티7日AP聯合=本社特約】 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도미니크·탕대주교를 중공廣東省대주교로 임명함으로써 교황청과 중공간의 오랜 불화를 청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황청의 이번 중공주교임명은 지난57년 중공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래 처음있는일이며 장차 교황의 중공방문길도 터놓을것으로 기대된다.

로메오·판치롤리교황청대변인은 北京당국도 탕주교의 임명에 동의했다고 암시했는데 이렇듯 北京측이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게된것은 중공내에 확고한 발판을 다시 구축하려는 교황청의 수십년계속된 노력의 결과다.

한편 교황청은 중공의 이런 방침은 종교에 관대함을 과시하는 한편 臺灣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것으로 풀이하고있다.

교황청은 현재 臺灣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있는데 이것이 이제까지 중공과의 관계정상화를 막아왔으며 앞으로 관계개선에도 장애가 될것같다.

교황청 본서가들은 北京과 교황청은 72년 미국이 『중국은 하나뿐이고 臺灣은 그 일부』라고 인정한 上海성명후 분명히 상호이해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7일 교황청에서 열린 기독교 통합회의에 참석한 고위성직자 명부에는 탕주교의 이름이 臺北의 마레오·기아대주교와 함께 중국난에 나란히 기재되어 있었다.

소식통들은 탕주교가 로마교황청과 중공의 친정부기관인 北京애국가톨릭협회 사이의 중재자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北京애국가톨릭협회는 그동안 北京교구주교등 고위성직자들을 교황청의 승인없이 독자적으로 임명해왔는데 교황청 국무장관 아구스티노·카사롤리는 이같은 행동이 「비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했었다.

로마의 최대신문인 일·메사게로지의 보도에따르면 중공 지도층은 오직 교황만이 주교들을 임명할수있다는 전세계 통용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대신 교환조건으로 교황청은 北京협회에 의해 지명된 인물들을 임명하기로 결심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되면 교황은 중공에서 고위성직자를 임명하기전에 北京정부당국이나 가톨릭협회와 협의할것이라고 이신문은 덧붙였다.

이방법은 가톨릭교회가 폴란드등 다른 공산주의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용해왔던 전례가있다.

로마교황청이 탕주교 임명에 北京의 동의를 얻어낸것은 바오로6세가 중공과의관계개선을 촉구한지 20년만의 일이며 北京당국이 종교에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정책을 펴기 시작한지 2년만의 일이다.

요한·바오로2세는 2년전 취임했을때부터 계속해서 北京에 관계 개선을 제의해왔다.

지난2월 태평양지구방문때도 교황은 중공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49년 중공정권이 수립된이후 단절된 로마교황청과의 유대를 재수립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청과 北京과의 비공식적 접촉은 2년전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인 로저·에쉬가래이추기경과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프란츠·쾨니히 추기경의 訪中에이어 2명의 중국태생신부가 중공을 방문했다. 한편 교황청은 臺灣이 아직 로마에 대사를 상주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臺灣과의 외교관계를 대리대사級으로 격하시켰다.

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지난2월 아시아순방후 귀국길에서 바티칸이 중공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臺灣과관계를 단절할것을 고려하고있는지에대해 질문받은바 있다.

이질문에 대해 교황은 『교황청 입장에서본다면 다른국가의 경우처럼 외교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자신은 결코 바티칸과 중공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생각한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교황청이 중공과 관계를 단절한적은 없다. 다만 중공이 교황청 사도대표단을 추방했을뿐』이라고 말했다.

탕주교는 로마 가톨릭당국과 北京의 친정부적인 애국가톨릭협회 양자가 함께 인정한 유일한 주교이다.

41년 上海에서 신부서품을 받은 탕대주교는 50년 당시교황 비오7세에 의해 廣東관리주교에 임명되었으며 59년 反革命협의로 중공당국에 의해 투옥, 80년 6월까지 22년간 옥고를 치렀다.

탕대주교가 석방되자마자 北京애국가톨릭협회는 그를 廣東주교에 임명했다.

교황은 다음 추기경회의에서 탕대주교를 추기경에 임명할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관측통들은 탕주교의 廣東대주교 임명으로 바티칸이 임명한 대주교가 이끄는 중공教界를 교황요한·바오로2세도 방문할수있는 길이 열렸다고 논평했다.

지난번 마닐라 방문때 교황은 마닐라거주 중국인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중국인민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위해 개인적자격으로 중공을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敎皇만나는 탕大主教 6일 교황청에 의해 廣東대주교로 임명된 中國인 탕대주교가 지난4월30일 바티칸에서 가진 교황알현식에서 요한·바오로2세에게 반지를 증정하고있는 모습。【바티칸시티7日AP聯合】

親사드르穩健세력·強硬회교정통파 테헤란 곳곳서 流血충돌

【테헤란8日AP聯合】 아볼하산·바니·사드르 대통령을 주축으로한 이란정부의 온건세력과 입법·사법부를 장악하고있는 과격 회교정통파간의 권력투쟁이 심화되고있는 가운데 8일 테헤란 곳곳에서 바니·사드르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간에 산발적인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이같은 총격전은 이란회교재판부가 7일 바니·사드르계 신문 6개지를 정간조치하고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이들은 『압제에 항거』할것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발생한것으로 목격자들은 이날테헤란시의 중앙시장과 영국및 [illegible]대사관저등 테헤란 곳곳에서 바니·사드르 지지세력과 반대파인 헤즈볼라히(神의 黨이라는뜻) 당원들간에 총격전등 유혈충돌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테헤란시의 일부상인들은 바니·사드르대통령에대한 지지표시로 상점의 문을 닫았으며 많은 군중들은 곳곳에 모여 친 바니·사드르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란政局 초긴장 6개新聞 停刊令

【테헤란7日AP·AFP=聯合】 이란회교재판소는 7일 아볼하산·바니·사드르 대통령계의 일간신문인 『회교혁명』지를 비롯, 6개국내신문에 대해 긴장조성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분간 정간을 명령했으며 바니·사드르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어떠한 『압제와 전제』에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강요된 침묵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日極左데모 暴徒化

건설·運輸省등 정부廳舍습격 放火

【東京8日UPI=聯合】 미드웨이호의 기항을반대하는 일단의 극좌파들이 8일 東京의 한 정부청사를습격하고 사제화염방사기를 이용, 방화를했으나 불은 곧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극좌파들의 습격을받은 東京시내의 운수省과 건설省청사에서는 『나리따(成田)의 군사공항을 철거하고 미드웨이의 귀항을 막자』는 구호가적힌 불온삐라가발견됐는데 이 삐라에는 주가쿠(中核)라는 그룹의 이름도 적혀있었다.

이날사건은 업무시작 약3시간전에 발생, 사상자는 없었으며 극좌파들은 트럭을 버린채 도주했다.

호메이니 警告 "도발적 演說땐 누구든지 엄벌"

【베이루트8日AP=聯合】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툴라·호메이니옹(81)은 8일 『소요를 유발시키는 도발적연설을 하는자들은 체포, 엄벌에 처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호메이니옹은 이날 바니·사드르 대통령의 온건세력과 과격 회교정통파간의 세력·경파간의 권력다툼이 첨예화되어있는 가운데 이날 관영 테헤란방송을 통한 연설에서 군·보안군및 혁명수비대가 도발적 발언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들을 체포해야한다고 말함으로써 테헤란검찰청이 친대통령계 신문을정간시킨데 반발, 비난연설을 한 바니·사드르 대통령을 간접공격했다.

베이루트의 이란문제전문가들은 호메이니가 이날연설에서 바니·사드르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그를 경고의 표적으로 삼고있음은 명백한 것이라고 전했다.

耿飈와의 會談주목

헤이그방문 무기販禁해제 때맞춰

【北京8日AP=聯合】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의 중공방문은 미국이 정교한 군사장비의 對중공판매제한을 일부 해제키로 결정한것과 거의 때를 같이하고있다.

그러나 北京당국은 미국의 그와같은 결정에 아무런반응도 보이지않고 있다.

헤이그장관은 오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중공을 방문하는동안 당부주석 鄧小平, 수상趙紫陽 경제전문가인 부수상 薄一波등 고위중공관리들과 회담하는데 특히 부수상겸 국방상 耿飈와의회담에주목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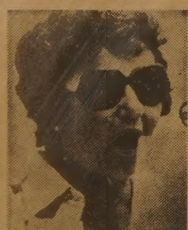
美서 藥局경영…쿠바 自由회복에 끈질긴 執念

亡命중인 카스트로 여동생

공산정권수립에 환멸을 느껴 지난64년 고국을 등졌던 피델·카스트로 쿠바대통령의 여동생 후아니타·카스트로여사(48)는 현재美마이애미의 쿠바난민촌에서 조그마한 약국을 공동경영하면서 조용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쿠바의 자유회복에 대한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카스트로를 증오하는 수천쿠바인과 어울려 독신으로 살고있는 그는 이제 주근깨투성이에 빨강머리카락을 가진 40대후반의 중년부인으로 변모했다.

[illegible]



◇후아니타·카스트로女史

단체의 주목을 피하고 있지만 『쿠바에 진정 책임있는 정부를 복귀시키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 어떠한 단체라도 열심히 도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카스트로남매는 모두 7명인데 현재 다섯은 쿠바에 살고있고 결혼한 엠마여사는 멕시코에있다.

『우리는 아주 다정한 남매였다』고 회상한 그녀는 엠마여사와는 연락을 하고있으나 고국의 형제자매들과는 일체 접촉이 없다고 했다.

그는 조만간 쿠바정부가 변화되거나 카스트로정권이 전복될 것으로 보진 않고있지만 『나는 비관적이지는 않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결코 희망을 상실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피델이 권력에 사로잡혀있다』고 말한 그는 혁명투쟁당시를 회상하면서 『어느누구도 그가 공산주의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고 술회했다.

『문제는 피델이 권력에 눈이 멀어있었다는데 있다.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위해서 공산정권을 수립하고 소련등 공산국가와 동맹을 맺지않을수 없었을 것이다』 【마이애미(美플로리다州)AP=聯合】

오늘의 歷史 <9일>

▲佛·淸, 天津條約 체결 (1885)
▲英, 淸의 九龍반도 租借 (1898)
▲포르투갈, 王政붕괴, 共和制선포 (1911)
▲中國북벌군, 北京입성 (1928)
▲閣議, 休戰거부결의 (1953)
▲한국일보 창간 (1954)
▲南韓서 중립국감독위 철수 (1958)
▲낫세르 이집트대통령 下野성명 (1967)
▲南大門市場 大火 (1975)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SHANGHAI RESTAURANT

•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한 국 관

냉면·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 문
대소 200석 완비
OPEN : 오전11시~새벽1시

716 BLOOR ST. W.
☎ : 532-2727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MR. CHOIS RESTAURANT

●일식·한식·중국식●살롱음악
월~토, 낮12시~밤1시(일요일 휴업)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블루어안경

• Zeiss (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 지정 안경점
• Stock 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 영업시간 : 월~목·9 : 30AM-7 PM.
금·9 : 30AM-8 PM 토·9 : 30AM-6 PM
주소 : 629 BLOOR ST. W. TORONTO
☎ :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우황청심환●우황●사향●웅담
●녹용●정주사●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 (416) 977-9818

新聞, 오늘의 使命은 오직 事實報道

玄民 兪鎭午박사에게 듣는다

公正性잃으면 「죽은言論」

한국일보의 「젊음」 年輪쌓일수록 싱싱한 맛

民主主義, 소리 속 順理로

讀者에게는 움직일수 없는 不動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玄民 兪鎭午박사(75)는 예전의 新聞이 「사회의 木鐸」으로서 국민을 계도하는것이 그본래의 사명이었다면 오늘의 신문은 「情報의 제공」이 그사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의 自覺이 충분히 성숙한 오늘날에 있어서 국민들은 言論의 志士的 자세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또한 新聞 스스로가 그같은 역할을 떠맡을수도 없다는 것이다.

情報의 제공, 다시말해 事實報道에만 충실하면 오늘의 新聞은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셈이라는 견해다.

단지 情報를 제공하되 선택과정에서의 公正性은 절대 기본이며 偏向的 자세는 절대 禁物임을 내세운다.

더구나 價値觀이 결여된 技巧的 公正은 자칫 국민적 의사와는 동떨어진 역사의 조작행위라는 오류를 범할수도 있다고 말한다.

玄民선생은 기자와의 만남을 탐탁스레 생각지 않았지만 한국일보 創刊27돌을 맞아 私私로운 이해관계로부터 超然하면서 세상을 靜觀해온 元老의 얘기를 듣고싶어 억지를 부렸다.

—요즈음도 대부분 書架에서 消日하시는지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없어. 틈나면 산보도 하고 장난도 하지만 시간이 모자라는군. 남아있는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지만 늘 생각하고 책읽기에 쫓기느라 閑談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도 한국일보 創刊이래 집필과 기고를 해온 인연탓인지 玄民은 기자를 2층 書齋로 안내하며 언론忘遷症은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따뜻한 말을 먼저준다.

『張基榮 社主가 생각나는군. 公正하려고 애썼던 분이지. 뭐니뭐니해도 한국일보 紙面에서 풍기던 「젊음」은 최대의 매력이었어. 새로운뉴스와 파격적인 편집, 수준높은 기사등 새롭고참신한 신문을 만들려는 정열과 집념, 그리고 노력을 읽을수 있었지.

특히 과감한 해외소식의 공급이나 국내문제의 수준높은 眼目의 처리등은 他紙들이 舊態를 벗어나는데 자극을 줬다고 자부할만도 하지』

—선생님은 기자를 비롯, 언론인들의 의식구조를 탓하시는것같습니다.

『글쎄, 신문기자의 質은 월등히 향상됐음에 틀림없어. 해외특파원의 글이나 국내기사에도 記名기사의 경우는 관심갖고보게돼. 특히 컬러의 도입이나 增面이후의 다양한 기획등 제작기술은 刮目할만큼 신장되고 현대화했음에 틀림없어.

그런데도 지난날의 투박한 紙質이나 인쇄기술로 제작했던 신문에 비해 아쉬움을 느끼고있는것이 솔직한 심정이야』

—오늘의 언론이 취할수 있는 바람직한 제작태도와 방향을 말씀해 주시지요.

『되풀이하는 얘기지만 예전의 신문은 「사회의 木鐸」으로서 국민을 지도하는것이 사명이었어. 지금은 事實報道를 통한 충실한 「정보의 제공」이 그 사명이지.

다시말해서 民衆의 自覺이 성숙치 못했던 시점에서 신문은 民衆의 지도 역할을 맡아야 했고 언론인은 志士로서 받아 들여졌지만 이제 신문은 商業紙로서 「지도 역할」보다는 「報道역할」에 충실하면 족하다고 생각해. 民衆의 지도는 정부나 정당, 종교단체나 문화, 경제단체등 특별목적을 지닌 전문분야에서 맡으면 되는거야.

그러나 신문의 역할이 바뀌었다고해서 사회지도성을 상실했거나 문화됐다고 생각하면 무책임한 자세지』

◇玄民 兪鎭午박사는 신문의 사명이 事實報道에 있음을 강조한다. 事實報道를 위해서는 「公正性」이 절대기본이며 「偏向性」은 절대 禁物이라고 말했다.

玄民은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얘기는 믿지 않으면서도 친구들의 얘기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비유, 商業紙의 객관적보도자세의중요성을 강조한다.

『객관적 보도자세의 기본은 公正性에 있지. 물론 複合사회인 민주사회에서 제한된 紙面에 모든 의견을 반영할수는 없어. 그러기에 국민에게 제공할 정보의 취사선택에는 신중한 公正性이 있어야 해. 사실아닌 그릇된 사실을 사실인것처럼 보도했을때 독자는 이를 믿게 마련이야. 아니면 價値판단의 혼란을 일으키게 되지. 예로서 카메라의 초점을 화려한 부분에 맞추느냐 어두운 부분에 맞추느냐에 따라 결과는 貧·富가 엇갈리게 되지 않나』

—公正한 보도를 위한 기본자세를 말씀해 주시지요.

『偏向的자세는 금물로 해야 해. 보도에 偏向이 주어지면 보도가 아니라 宣傳物에 불과할 뿐야. 특히 公正이라는 형식논리만을 의식한 나머지 價値觀이 결여된 技巧的 公正을 취한다면 그야말로 公正性을 잃는 행위야. 역사는 과거의 모든것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價値觀에 따라 중요한부분이 기술되는거지. 偏向的 자세나 價値觀이 결여됐을때 역사는 조작되게 마련이아니겠어? 극단적인예가되겠지만 共産主義의 역사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 않나』

—偏向的자세나 價値觀이 결여된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빗나간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쉽게 한예를들지. 툭하면 「外國 碩學의 견해」라고 이름도 모르는 외국교수들의 글을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혼란시키고 誤導하고있어. 우리의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구조를모르는 그들의 말이 마치 名醫의 藥이라도 되는양 보도하는것은 큰 잘못이지.

민족의 自主性을 찾자는 움직임만도 그래. 바람직 스러운 기운이기는 하나 샤머니즘과 自主性을 동일시 하려는것은 대단히 왜곡된 경향이지』

—어렵게 만나뵈었는데,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激變을치르고 난뒤 국민들이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어. 사실 나도 불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이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와지는 일은 없어야돼.

위정자들은 民意파악에 私意를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 꾸준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싶군』

玄民은 「절대安定」을 요구하는 국민의 共感帶가 마련된 이상 이제는 국민들에게 同參의식을 심어주면서국민적 和合을 기하는데 주저하거나 인색할 필요는 없지않겠느냐는 견해다.

『學術院문제만해도 그렇지. 學術院은 養老院이 돼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나는 學術院은 養老院이 돼야한다고 생각해. 도대체 세계 어디에 젊은學術院이 있나. 氣力있는 학자들을 활용하려면 별도의 학술회를 구성하면 되는것이고 學術院은 그나라 지식의 象徵으로 남겨두면 되는것 아닌가.

세대교체는 바람직하지만 경험이나 경륜을 劃一的으로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풍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의아심을 느낄때가 있어』

—국회도 開院이 됐고, 특히 野黨의 활동에는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주위 정세가 예전과는 판이하게다르다는것을 잘 알고 있어. 深層 내막도 잘모르고 더구나 행동할 자유없이 이래라 저래라 감히 얘기 할수 있나.

그러나 野黨은 野黨다와야 野黨인것이고 언젠가는 野黨 구실을 할것으로 믿고 싶소』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들려주시지요.

『평화적 정권교체를 한번쯤은이루어놓고서야 거론할 문제지. 경험이 없는 탓이기도 하지만 평화적 정권교체의 개념조차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고 있는것같아.

민주주의란 본래가 合理的인 투쟁속에 소리가 있고 시끄러운거야. 다른 정치에 비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비능률적인 제도지. 유일한 장점이라면 바로 국민의 集約된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룩할수 있다는 점이야』

玄民은 민주주의는 바로 合理주의인만큼 民主化의 여망에 부응키위해서는 順理가 뿌리를 내려야 하며 아무리 合理的 투쟁이라도 기본질서를 파괴한다면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것이라고 사회질서 유지론을 잊지 않았다.

—현행 學制의 개편문제등 교육제도의 개혁을 둘러싸고 떠들썩한데요.

『관심은 있지만 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야. 다만 6-3-3-4 學制등기본제도는 건드리지 않은채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말하고 싶어.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개선은 국가적인 財政, 교육자의 자질, 사회문화 수준의 향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잊어서는 안되지. 中·高생들에대한 교육자세를 보면 日政때에 비해 개선된점을 느끼기가 어려워』

—선생님의 義虎記를 읽은적이 있읍니다만 4·19 전날 국회 의사당앞에서 제자들에게 『잘했다. 오늘은 이만하고 학교로 돌아가자』는 말씀이 새삼 생각나는군요.

『나는 학생들이 민족과 국민의 운명을 걱정하는 刹那에 책이나 붙잡고 돌아 앉아 있을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학생이 모든 정치운동을 전담한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으로 민족의 불행이야. 학생의 본분이 공부하는데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所信이지. 냉철한 知性으로 세상을 觀照하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해』

—최근에 읽고 계신 책을 소개해주시지요.

『英國 기자 로버트·한트퍼드가 쓴 「新全體主義(New Totalitarianism)」와 日本人 小室直樹가 쓴 「아메리카의 逆襲」이란 두책을 흥미롭게 읽고 있어요. 한트퍼드기자의 글은 福祉국가의 상징인 스웨덴이 新全體主義化되고 있음을 우려한 내용이고 日本人책은 日本의 고도기술과 中共의 무한대 單純노동이 결합하면 무한한 경제발전을 누릴수 있기때문에 中共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미국은 宿敵의 관계」가 된다는 황당무계하면서도 의미를 담고있는 내용이지』

玄民은 특히 한트퍼드기자의 책을 소개하면서 자신도 복지국가 주창자임을 전제하면서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가 복지국가의 건설인 이상 국민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깨우쳐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나라에서 그냥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큰 잘못이야. 福祉국가를 향해 나가는데는 불가피한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돼. 그 하나가 財政수요의 증가에 따른 增稅고 또 하나는 개인 私生活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여가 확대된다는 점이지. 福祉국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폐단이지만국민들은이해와각오를 해야해』

—국가권력의 간섭확대라면 개인생활의 보호라는 자본주의의 본질과 背馳되는게 아닙니까.

『운영의 妙가 강조되는것이 바로 그 점이지. 국정지표중에 사회정의의구현이 강조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야. 자본주의의 본질인 개인주의를 보호하면서도 福祉국가의구현을위해 개인보다는 사회와집단을 생각하자는것이 사회정의의 개념이지. 한트퍼드기자의글도 스웨덴은 「사회가 안정되고 性의 자유는있지만 정치의 자유가 없다」면서 新全體主義化를 우려하고있는 내용이야』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언론인들에게 하고싶은 말씀을 해주시지요.

『公正한 보도를 하겠다는 최소한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야지. 독자가 미련하게 속을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움직일수 없는 不動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돼. 한국일보의 「젊음」은 年輪이 쌓일수록 간직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군. 「아」와 「어」가 다르다는 것을 잊지말게』

한시간 가까이 기자에게 던져주는 玄民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전달키 벅찬 深奧한 理論과 현실의 체험이 濃縮된 眞理가 담겨 있었다.

<會見=李成俊기자>

The New York Times

<美 뉴욕·타임즈>

妥協않는 百30년社是

뉴욕·타임즈(NYT)는 1851년생으로 1백30세다. 발행부수는 평일에 85만부, 일요일에 1백45만6천부(80년통계)。蘇聯의 프라우다나 北京의 人民日報, 日本의 요미우리(讀賣) 신문보다는 적다. 그러나 페이지수로는 평일에 평균 88페이지, 일요일에는뉴욕·타임즈 잡지를포함, 6백페이지가 넘으니까 어떤 세계의 신문도 따를 수 없다. 1977년 11월13일의 일요일자 신문은 1천36페이지로 3·6㎏이넘어 뉴욕·타임즈의기록으로 남아있다.

작년 뉴욕·타임즈의수입은 4억6천3백만달러로 순이익이 31만달러를 넘었으니까 돈도 많이 버는 신문임에 틀림없다. NYT는 신문왕국을 이룩했다. NYT의 사내에 갖고있는 자매회사는 현재40개。신문이 18개(일간지11, 주간지7), TV방송국이 2개, 클래식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FM-AM라디오가 1개, 골프다이제스트와 테니스관계잡지를 포함하여 1백만부를 넘는 잡지가 4개다. 출판사와 정보은행도 있고 신문사가 제일 필요한 제지공장은 16개나 된다. 자매회사중엔 NYT세일즈회사라해서 NYT뉴스서비스의 이름으로 뉴스를 파는 통신사가있다. 이는 5백6개의 미국신문사와 53개국의 신문사에 사진과 뉴스를 팔고있다.

매일밤 10시에 NYT지방판 제1판이 나오면 AP UPI 로이터 타스등 세계의 국제통신사들은 NYT의 중요기사를 텔렉스나 통신위성으로 송고하기에 바쁘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닉슨은 제외)이 아침에 눈뜨자마자 모닝·코피도 들기전에 NYT의 1면을본다는 얘기는 널리 알려진 얘기다. NYT가 한마디하면 유럽은 경청하고 크렘린은 주시한다고 해리슨·솔즈버리는 「두려움도 호의도 없이(without fear or favour)」란 NYT에 관한 최근 저서에서 지적했다.

70년말에 소위 코리아게이트란 韓美간의 문제로 양국관계가 좋지않았을때 서울은 NYT의 영향력을실감한바있다. 全대통령이 레이건을 만나기위해 訪美했을때 한국의 10대기업은 이를에결쳐 NYT에 訪美환영전면광고를 대문짝만하게 게재한 일이있다. 같은 날짜 신문에 같은 내용의 전면광고를 7개씩 낸것도 NYT광고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각국 원수들이 공식 訪美할때면 10페이지가 넘는 홍보용 광고특집을 NYT에 내는 것이 눈에 띈다. 홍보란 측면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들은 NYT에 특집광고를 하지만 NYT는 별로 봐주는(?) 것같지 않다.

社運걸고 秘密폭로도

「不偏不黨, 두려움도 情實도없는 뉴스의 취급…」「인쇄할 가치가 있는 모든 뉴스를 게재한다」는 것이 NYT의 1백30년된 社是다. 그런 社是가 있고 타협을 하지않을수 있기때문에 오늘날의 NYT가 되었는지 모른다. 꼭 10년전 6월13일에 NYT는 소위 「펜터건·페이퍼」란 닉슨정부의 베트남정책 비밀문서를 폭로, 보도해 정부와 一戰을 벌인 일이 있었다. NYT는 社運을 걸고 펜터건·페이퍼를 보도했다. 25만달러를 들여 비밀보존을 위한 기사작성및인쇄장소를 마련, 사상최대의 특종을 보도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솔즈버리의 말과 같이 펜터건·페이퍼사건이 없었으면 미국의 언론이 제4府로 오늘같이 군림할수 없었을 것이라고 볼수도있다.

이제 NYT는 포춘잡지가 해마다 뽑는 미국 5백大기업중 4백7번째로 꼽히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NYT는 연중무휴로 세계와 우주를 5백명의 본사기자, 32명의 해외특파원, 5백명의 통신원들과 세계유수한 9개통신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

한편 NYT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반발도있다. 「NYT의 횡포」를 규탄하는 조직이 최근 뉴욕에서 생겼는데 統一敎에서 발행하는 월드·뉴스란 신문은 그의 공기총을 NYT에게 겨누고 있다. 과연 공기총이 NYT의 철판을 뚫을수있을지 모르겠으나 당나귀가 바늘구멍을 뚫고 나가려는 격으로 볼수밖에 없다.

3년전 7월1일 NYT는 모든 시설을 소위 콜드(COLD)타이프로 고치고 전자화 했다. 제작과정이 최신식이되어 전자스크린에 기사를쓰며 편집도 전자시설로 한다. (本紙 LA支社를 비롯하여 뉴욕, 시카고支社도 제작시설이 전자화 되었다) NYT는 한국이나 일본 신문같이 컬러판을 내지않는다. 그러나 기록을 위주로 하는 신문의 특성을 갖고 있어 비행장에서 막내려 NYT를보면 어떤 사건도 전후관계를 소상하게 알수 있다.

●뉴욕 金泰雄 특파원

新聞이라는 대중媒體를 놓고보면 세계가한지붕아래 놓여있다는게 한층 실감난다. 質이 좋다고 평판있는 외국신문들이 골라서싣는정보는 그날로 우리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남의 나라일이면서도 진실성이 문제가됐던 워싱턴·포스트의 기사「지미의 세계」같은 사건에서 우리가받은 충격이 적지않았던것은 무리가 아니다. 정보需要가 급증하는 요즘 세계에서 良質로 손꼽히는 신문들은 어떠한 감각으로 어떤 기사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있는가. 한국일보특파원들이 뛰어서 그 실상을 전한다. 【편집자註】

Post

자기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사건에 대해서 신문이 게 꿰뚫어 보게된다. 하지만 외국에서 일어난 어떤특정 문제를 외국의신문기자가 그나라의 사회지식수준과 문화수준에따라 보도했을 경우 외국독자들이 그특정문제의 참얼굴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그리쉽

그사건이 진기하고 또 퓰리처상까지 돌려주게된 충격적인 사건이니만큼 그것은 미국에서도충격적으로, 선정적으로 보도되었다. 한국신문들도 그지미의 날조사건을 미국신문들처럼 크게 보도했다.

기한」사건을 진기한 측면에서 거의 흥미거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쿠크여기자의 아주 지능적인 날조기사 폭로를 보고 상당수의 미국기자들이 허위보도를 하고있지 않느냐고 의심할수도있지만 미

국무성에서 매일 열리는 기자브리핑에서 AP、UPI、뉴욕·타임즈、워싱턴·포스트、ABC·TV、NBC·TV등 이른바 미국언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자들은 하나같이 국무성대변인의 말을 녹음했다.

날조기사가 미국사회서 언론의 신뢰문제로 전면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다고말하려는것은 아니다. 한동안 TV좌담회나 신문의 칼럼에서 언론의 신뢰문제가 진지하게 거론됐었다.

●워싱턴 曺淳煥 특파원

張吉山 (90)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50)

『몸은 편하시게요?』

계화가 물으니 여환은 그닥지 않게 머뭇 머뭇 답하였다.

『원향이를… 씻겨 주려고요』

『스님이요?』

계화는 잘못 들었다고 여겼는지 되물었다.

『그애를 씻어 주어요?』

『예, 밭에 상처도 많고 머리를 감은 지도 오래인 것 같더군요. 기도를 드리려면 정결해야 될테니까』

여환이 이번에는 부끄럼을 타지않고 계화를 똑 바로 바라보며 대꾸하였다.

『아유, 그렇다면 오죽 좋아. 세수 한번 시키는데두 우리 두 양주가 송아지 받아내듯 한다오. 기운이 어찌나 센지 물박을 엎어 놓기 일쑤라구요』

『이제부터 차츰 넋을 찾게 되겠지요』

『글쎄 우리가 원정사를 떠나기 전까진 그렇게 되어야 할텐데』

계화는 무엇이 우스운지 혼자서 벌쭉대며 중문간으로 사라졌다. 여환이가 마루에 앉았는데 언제깨어났는지 원향이 부스스한 몰골로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었다.

『배고파 밥줘. 배고파 밥만』

꼭 서너살짜리 아이처럼 원향이는 떼를 쓰는 투로 칭얼거렸고, 여환이 달랬다.

『어 착하다. 조금만 기다리면 보살님이 밥을 주신단다. 그동안 스님하구 놀자꾸나』

원향이가 알아듣기라도 하였는지 힘없이 방문가에 털썩주저앉았다. 계화가 나와 알렸다.

『스님, 물 다 데웠수. 용, 원향이가 저렇게 참하게 앉아 있는건 또 이번일세』

『그러면 데운 물을 동이에 길어다가 광에 갖다 주시오. 나는 애를 데리고 갈 테이니』

『그냥 샘가에서 시키지 않구요?』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계화는 눈을 휘둥그래 떴다.

『모, 목욕 감기려우?』

『예, 기왕이면…』

계화는 하마터면 망측해라 하고 외칠뻔 하였다. 그렇지만 그 여자는 부엌에서 물을 가득 채운 가마솥에 불을 때다가 공양도 굶었는데 뭘 하느냐는 옥여의 물음에 답하였던 것이다. 여환 스님이 우리 원향이를 씻겨 준답니다. 절에서 스님이 부녀자에게 그래두 되는 겁니까. 옥여는 빙긋이 웃고는 나는 안되오마는 여환 수좌는 됩니다 하던 것이다.

『어서 길어다 주시오. 힘들어 그렇다면 여기서 애를 지키구 있으시우. 내가 길어 나올테니까』

여환의 재촉에 계화는 하 어이가 없어져서 말이 새었다.

『아이구 우리 서낭님두 그렇게는 안허겠다』

『서낭이야 귀신이지만, 우리는 사람이 아니오?』

하면서 여환은 웃음을 지었고, 계화는 연신 중얼거리며 사라졌다. 잠시후에 중문간에서 목소리만이 들려왔는데 자못 퉁명스러웠다.

『길어다 놨수』

여환은 맥없이 앉아있는 원향의 손을 잡고 가볍게 당기며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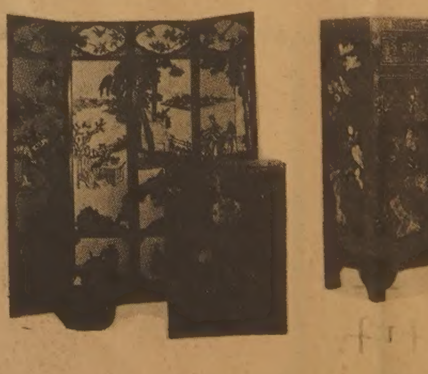
『자아, 우리 이제 씻으러 가자. 이 고운 몸에 이게무슨꼴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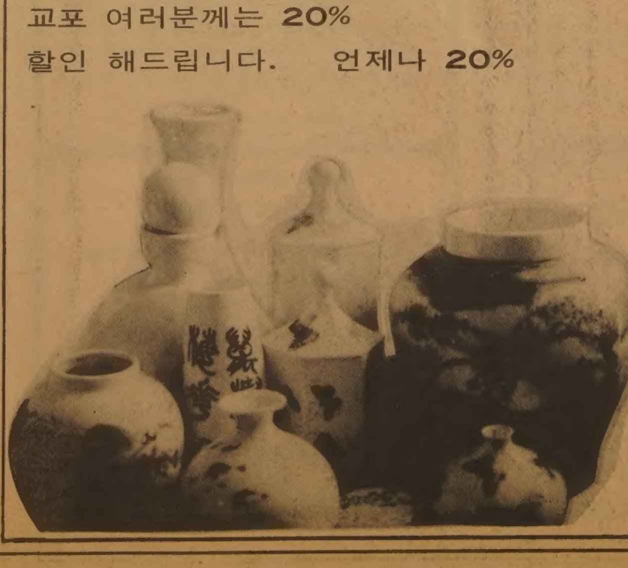
『배고파』

하면서도 원향이는 가축이 임자에게 그러듯이 고분고분 일어났다. 여환은 원향이의 손목을 잡고서 안채의 광으로 갔다.

T. P. ADVERTISING GROUP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간판·윈도우 싸인·쇼-카드전문
●그 래 픽 : 신문광고·상업디자인·비지네스및 개인명함
●디자인부 : 회사나 단체 마-크 각종포스터및 팜프렛
●인 쇄 부 : 도서(책자)·편집및 출판(광고지 포함)
637A BLOOR ST. W. TORONTO.
☎: 535-0647. 0545
대표 송 관 현

Rasan Galleries LTD.
동양의 멋이 담긴 고급가구, 앤틱, 선물 용품을 구비하고 있읍니다.
교포 여러분께는 20% 할인 해드립니다. 언제나 20%





* 취급품목
● 북경장미목 가구, Cabenet, Screen, Antigue가구.
● 북경 칠보공예품(Cloisonneware) 및 상아(IVORY), Jade조각품
● 각종 북경보석품(금, 은)
● 중국, 일본 골통품및 동양화
● Hand Painted Ceramic,
● 이조가구 복제품및 한국병풍

444 YONGE ST
COLLEGE PARK SHOPS
595-0836

220 YONGE ST.
EATON CENTRE
"THE MEWS" 4LEVEL
593-4208

이 용 석

世界의 權威紙 이렇게 만드

The Washington <美 워싱턴·포스트>

「지미의世界」파문에도

파장 보도하거나 파손보도하더라도 그사회의 지식인 학생들은 신문의 잘못을쉽지않을 것이다.

실존하지 않았던 8세의 헤로인중독자 「지미의 세계」를 보도해서 퓰리처상까지한 재니트·쿠크란청은 여기자가 그기사가 날조된 것이 판명되어 상을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하자 워싱턴·포스트지는 세계적인 뉴스의 초점이 됐다.

「지미의 세계」날조기사는 미국의 신문기자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드물게 일어날 수있는「진기한」사건이었다.

다같은 충격적인 보도를 없었지만 미국독자들과 한국독자들이 이사건을 보는 눈과 워싱턴·포스트지를 이 사전과 관련하여 평가하는 데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독자들은 미국의 신문기자들이 정부의 비민주적 처사, 권력의 남용, 고위관리의 비행들을 정확히 밝혀내서 민주사회의가치를 지키려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때문에 그「진」

국독자들은 미국신문기자와 신문을 너무나 신뢰하고 있다.

물론 그신뢰는 미국기자들이 컴퓨터처럼 정확한 보도를 하기위해 매일 매일 노력하고 있는것을 직접 또는 지면을통해서 보아왔기 때문이다.

미국기자들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를 기자는 매우 부러워하는 한편 그들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정확한 보도를 위한 헌신적 노력에 언제나 경탄한다.

Le Monde <佛 르·몽드>

保守와變化의 균형추

『르·몽드는 社說이라고 정해 놓은것이 따로없다. 국제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는 강한 유럽속의 번영된 프랑스를 건설하는것,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분쟁을 해소하여 세계에 질서를 확립하는것, 이것이 르·몽드의 역할이다』라고 이 신문의 편집국장인 앙드레·퐁텐씨는 말한다. 퐁텐씨는 1947년에 입사한 30년이상 경력의 르·몽드맨으로 1969년부터 12년째 편집국장자리에 있다.

1944년 드골의 임시정부아래서 창간된 르·몽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신문이 되었다. 작년에 기자들이 새 사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을때 메이몽·아롱같은 사람은 『이것은 국가적인 선거다. 르·몽드는 국가적인 기관이 되었으므로』라고 말했다.

르·몽드는 스캔들이나 센세이션에 휩쓸리지 않고 사진과 연재만화를 싣지않는 근엄한 표정으로 권위를 쌓아왔다. 프랑스의 신문들은 전통적으로 코멘트기사가 장황하게 길고 하드·뉴스가 모자란다. 르·몽드는 게다가 잘 읽히지 않는 딱딱한 평론을 매일 싣는다. 그리고 무슨 사전이 있을때 이 신문이 제공하는 자료의 양은 가히 小圖書館이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르·몽드는 뉴스제공이라는 일반적인 신문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않는다』는 말이 나오기도한다.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공, 이것이 바로 르·몽드의 자랑이다. 정보를 세심히 확인하고 정보를 연구, 비평하여 진해설기사를 많이 쓰는것이 또한 우리의 편집방침이기도하다』라고 퐁텐씨는 말한다.

르·몽드는 週單位로 요일따라매일 경제, 과학및의학, 문화예술, 독서, 오락등으로 나누어 특집을 내는것이 또한 특색이다.

르·몽드의 특성이라면 무엇보다도 국제성에있다. 제호 그대로 (르·몽드란 세계라는 뜻이다) 어느 다른 신문보다도 국제문제에 대한 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퐁텐씨에 의하면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문화에 대한 기사의 양이 매일 최소한도 전지면의 4분의1이상이다. 전세계에 17명의 상주특파원이 나가있고 현지보조기자는 40명이 넘는다. 르·몽드紙의 독자는 6분의1가량이 외국에 있다.

퐁텐씨는 르·몽드의 또다른 큰個性으로 기자들에 의한 社長 선거제도를 든다. 기자들이 전체 株式의 40%를 가지고있어서 社長을 기자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작년에 82년말로 은퇴하는 자크·포베 현社長의 후임으로 르·몽드 外交版부독편집장인 클로드·쥘리앙씨를 새社長으로 뽑

Frankfurter Allgemeine <獨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1面 社說싣는政論紙

「에파제트」(FAZ)로 약칭되는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유럽의獨語圈 지역내에서 최대권위紙로 꼽히는 日刊紙다. 有價부수는 33만부에 불과하지만 FAZ의 권위있는내용과 논평, 그리고 사설은 「서독의 여론」으로 높이평가받고 있다.

서독의 금융수도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두고 또간으로 발간되는 FAZ의 두드러진 특징은 신문의주요보도 분야를 정치, 경제, 문화의 3개분야로 대별하여 지면과 취재력을 최대로 동원하고 있는 점이다. 신문편집조직상 일반신문의 편집국장에 해당되는직책이 없이 각부의 부장들이 공동으로 편집국운영을 책임지며 신문 1면에 사설과 논평을 게재하여 「政論신문」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점이다.

FAZ는 2차세계대전중 히틀러에 의해 폐간되었던 독일의 대일간지 프랑크푸르터·차이퉁의 비공식 후계신문으로, 또 戰後 연합군의 신문면허제도에 따라 프랑스군 점령지였던 마인츠에서 발간되던 알게마이네·차이퉁의 공식후계紙로 1949년11월1일에 창간했다. 이신문은 정식신문제호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밑에「도이칠란트를 위한 신문」이란 副題를 달고있다.

FAZ는 정치에12개面, 경제에 12개面, 문화에 8개面을 배당한다. 정치면은 1면에서 7면까지 주로 국내의 정치기사와 해설기사, 르포, 논평, 단신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독자투고난도, 한페이지정도 할애하고있다. 또 독일의 사회면기사와 세계의 정치단신기사를 싣는 「도이칠란트와 세계」라는 페이지가있다.

FAZ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면은 경제면이다. 경제사설, 논평과함께 국내외 경제기사와 해설, 기업체소식과 증권, 외환시장형편등, 깊이있는 기사들로가득찬 경제면은 통상6面에서부터 12개面까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

문화면은 기획기사와 해설기사등 심층분석이 뒤따르는 지면구성을 주로하며 행사관계나 단신기사는 가급적 삼가지만 FAZ특유의 신문연재소설이 이곳에 실리고있다.

FAZ는 프랑크 푸르터

讀賣新聞 <日 요미우리>

이슈위주의 綜合編輯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발행부수에서 세계 제1의 신문이다. 무엇이든 세계 제1만을 기록하는 기네스북 81년도판은 요미우리신문을 세계최대의 발행부수를 가진신문이라고 적고 있다.

81년1월1일 현재 9백만6천2백9부(조간)이며 석간까지 합치면 1천3백만부를 훨씬 넘는다. 일본의 연구가 1억이니 대충 10사람중 한사람이 요미우리 신문을 사보고있으므로 그영향은 심대하다고 할수있다.

요미우리가 아사히(朝日)와 마이니찌(每日)를 누르고 일본 일간지의 정상을 차지할수 있었던것은 제1차 오일쇼크가시고난 76년11월이었다. 그해 가을 요미우리와 아사히는 7백10만대 7백15만으로 요미우리가 5만의 낙차를 보이고 있었으나 아사히에대한 겨울철 반격이 성공하여 처음으로로 7백15만대 7백10만으로 역전시켜 오늘까지 요미우리는 계속 최고부수의 왕좌를 고수하고있다.

판매의 귀신이라고 일컬어진 무따이(務台光雄)요미우리사장은 요미우리가 제일가는 신문으로 발전하게된 것을 이렇게 설명했다. 『편집과 업무 그리고 광고가 3위일체가되어 읽기쉬운 권위지를 만들어 잘팔고 널리 광고했기 때문이다』

중립상업지를 표방하며 단시일내에 정상을 차지한 요미우리신문은 다양한 기획과 사업추진의면에서 한국일보와 유사한 점이 많다.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획과 다채로운사업은 신문의 보급에 필수적인 것이다. 1924년 소리끼(正力松太郎) 사장이 요미우리를 인수했을때 5만부의 군소신문에 불과했던 요미우리는 10년만에 75만부를 확장, 당시 아사히와 마이니찌를 누르고 東京에서 제1의 독자를 확보하게 됐었다.

그비결은 누구도 기획하지않았던 방송프로그램난의 설치, 스포츠 오락 바둑난의 창설, 문화적 새채가 강한 가정난의 운영등으로 남녀노소의 구분없이 여러계층의 독자를 한꺼번에 흡수한데 있었다.

오늘의 무따이사장은『신문도 상품인 이상 잘 읽히는 신문을 만들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수한 판매원이라도 신문을 확장할수없다.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을 대담한 기획으로 제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요미우리신문의 편집국。

言論의 信賴度는 不變

한다.

도둑이 제발에 절리는식으로 기자는 처음에 미국에와서 녹음기를 들고다니는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했으나 미국의 대 기자들이 일일이 녹음하는것을보고 부끄러움을 빨리 씻어버릴수가 있었다.

미국 기자들은 정부관리,가 말한 내용을 정확히 보도하려고 할뿐아니라 말한 그대로를 정확히 전달하려고무한한노력을기울인다.

그렇다고「지미의 세계」

그것은 미국 국민들의언론신뢰도가 허물어져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소중한 언론의 신뢰를 더 완벽한것으로 만들기위한 노력에서 나왔다고 보는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

퓰리처상을 돌려준 파동이 일어난후 2개월이 지났지만 워싱턴·포스트지가 독자들의 신뢰를 잃어 발행부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기자가 살고있는 아파트에는 약4백가구가 있는데 워싱턴·포스트지를 현재보고있는 가구는 94가구라고 한아파트수위는 말한다.

워싱턴·포스트지가 지미의 날조와같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별다른 타격을 입지않은것은 미국에서 신문기사는 어디까지나 그기사를 쓰는 개인위주로 체제가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1面머리기사를 비롯 1面에 나오는 모든기사가그 기사를쓴 기자이름아래 보도된다.

기자는 지미事件후의 워싱턴·포스트紙를 취재하려고 브래들리 편집총국장과의 인터뷰신청을 공식또는 비공식적으로 제의했었으나 브래들리총국장이 수락이나 거절의 명확한태도를 취하지않고 비서가 자꾸연기해 오는동안 마감시간이 다가와 기자는 인터뷰없이 기사를 쓰게 되었다. 지미사건후 브래들리 총국장은 미국및 외국특파원의 무수한 인터뷰신청을받아 그와의 인터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한관계자는 밝혔다. 이것이 지미사건이후 워싱턴·포스트紙의 가장큰 변모인것 같다.

記者의 社長直選制도

●파리 金聖佑 특파원

왔다. 퐁텐씨는 이 제도가 르·몽드의 편집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르·몽드는 흔히 左派의 신문으로 통한다. 이 신문은 1965년이래 선거때마다 左派를 밀었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미테랑을 지지해 당선시켰다. 퐁텐씨에게 까닭을 물으면 『이나라에 근본적인 변혁이 있어야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때문』이다. 그는 『신문의 중립이란 외부의 지시를 받지않고 자기가 말해야할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미테랑이 내일이라도 우리뜻에 어긋나면 비판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스럽고 이점에서 우리는 중립이다』라고 말한다.

르·몽드는 1958년 드골이 권력에 복귀할때, 그리고 망데스·프랑스首相의 정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권에 반대해 왔다.

「가장 읽히지않는 權威紙」이던 르·몽드는사정이 달라졌다. 발행부수에 있어서도 60만부로 프랑스에서 2, 3위의 신문이되었다.

퐁텐씨의 설명을 들으면 르·몽드가 창간되던 終戰당시는 프랑스인구의 35%가 농민이었는데 지금은 7%에 지나지않고 기계의 자동화로 노동자수도 많이 줄었다. 그대신 학생수는 10배로 늘었다. 국민의 지식수준과 생활조건과 이데올로기가 달라져 르·몽드의 독자를 늘렸다. 특히 젊은층의 독자가 많아졌다. 사회의 변화에따라 독자도 변한다. 퐁텐씨는『우리는 60년대부터 사회변혁에 따른 여러 문제들에 지면을 크게 할애해왔다. 젊은이들의 문제, 노인의 문제, 性문제,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등등이 그러나 신문이 변화에뒤따르기만 할것이 아니라 한발 앞서기도 해야한다. 르·몽드는 프랑스 국민의 대다수가 植民主義者들일때 우리는 植民主義에 반대했다』고 새시대에 대처하는 신문의 자세를 설명한다.

르·몽드가 뉴스사진을 안쓰는것은 창간당시에는 공장사정때문이었고 그후로는 신문이 살아있는 사진을 제공하는 TV의 대용품이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의 고집이지만 새社長취임과 함께 새인쇄시설을 갖추게 되어있어 視覺의 시대에 맞추어 사진을 쓰게될는지는 그때 재고될것이라고한다. 퐁텐씨는 이어 말한다. 『세상은 변한다. 우리는 이 변화를 잘 바라볼 좋은 눈을 가지려고 애쓰는 신문이다. 변화중에 어느것이좋고 어느것이 나쁜가를 가려낼줄아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에는 持續의 요소가 있고 變化의 요소가 있다. 持續이나 變化가 어느 한쪽에 흡수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두가지 사이에 균형을 잡는것, 이것이 신문의 역할이자 우리신문의 제작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部長중심 週1회會議

●프랑크푸르트 南玎鎬 특파원

의 전국스포츠 기사에 1페이지정도 만을 할애하고 있다.

이외에 매주수요일에「학문과 자연」「자동차」등특집을, 목요일에「관광여행」특집을, 토요일에「사진과 시간」이란 르포르타지위주의 특집을 내고있다.

발행인은 5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들이 공동으로 신문편집방향을 결정한다.

편집국장제도가없는 편집국은 각 부서의 부장들이 이른바「同職者原理」를 적용, 근무수석자가 소집하는 주1회 편집大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편집방침을 결정한다. 이같은 공동同職者편집책임하에서 제작되는 FAZ의 가장큰 편집특색은 1면의 편집을들수있다. 1면정치면의 특징은 어디까지나 오른쪽을 차지하는 논평과 사설. 그날그날의 주요뉴스를 분석평가하는 논평난의 제목은 매일오후에열리는 부장단회의에서 결정, 집필하는데 평균 64행을넘지않으며 사설과더불어 FAZ의 주장과 의견을 밝히는 인기있는 난이되고있다.

사설은 일반기사체보다 큰 활자체를 사용하여 발행인 다섯사람이 돌아가면서 집필하는 경우가많다. FAZ의 사설은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있으나 신중하고 권위있는 사설로 정평이 나있어 「서독의 의견」으로 외국신문에 자주인용된다.

2面에서 4面, 그리고 10面에 걸쳐지는 르포와 정치해설기사들은 FAZ의 자랑인 광범한 해외취재망으로 장식된다. 30명의 해외상주특파원가운데 14명이 박사학위취득자고 편집국근무기자들가운데 26명이 박사학위보유자다.

이때문에 FAZ는 때로는 거대한 학술연구기관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FAZ는 뮌헨에서 발간되는 쉬드·도이체·차이퉁과 더불어 전국지 4개가운데 가장 많은판매부수를 자랑하고있다. 33만부중 26만6천부가 구독부수다.

미국 시라큐스대학 신문학과가 선정한세계10대신문은 더·타임즈, 르·몽드, 가디언, 뉴욕·타임즈,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 아사히신문, 노이에·취리히·차이퉁, 라·프렌사(아르헨티나), 바겐스·리헤터(스웨덴)와함께 FAZ를꼽았다.

事業벌여 讀者와呼吸

●東京 朱孝彬 특파원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면을 정치기사로만 채우는 고정관념을 깨고, 종합지면으로 편집, 그날 발생하는큰 사건들을 실었다. 요미우리의 그런 종합편집은 각신문이 뒤따르게 됐다.

보기쉽고 읽기쉬운 신문제작방침에 따라 사진은시원스럽게 될수록 많이게재하고 4·5면을 와이드로 펼쳐 오피니언·페이지로 활용한다. 4면은 사설과 독자난, 5면은 중요의제를 심층보도 하는「금일의 단면」으로 만들어 여론을 집약시킨다.

사설이 요미우리의 의견이라면 독자투고는 국민의 의견이라는 생각에서 갖가지의견을 고루싣도록 배려한다.

주1회이던 컬러페이지는 일요일과 수요일의 2회로 늘리고 국민학교와중학생을위한 학습페이지도 만들어 학생과 어머니독자의 확보에 주력한다.

요미우리의 부수확장 비결은 독자들끄는 대담한기획과 서비스에 있다. 요즘 눈에띄는 기획기사는 석간 1면에 천편일률로실던 인터뷰기사대신 뉴스를 만드는 화제의 인물을 발표하여 5단크기의 인물사진과함께 그주변이야기를 담는것이다.

「얼굴」이라는 제목의 이기획은 인물의 꾸밈없는 소박한 얼굴을 보여주기위해 이마나 귀엽얼굴을 대담하게 커트하여 표정을 강렬하게 나타내는 수법을 창안, 큰 호평을 받고 있다.

2페이지에 걸친 부인면은 요리나 패션에 치중했던 과거의 편집방침을 버리고 물가와 상품에 관한 생활경제정보를 활발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부생활에 실효를 주고있다는 평을얻었다.

신문의 아이디어란 전매특허가 없다. 그래서 요미우리의 기획은 타지의 모방으로 오늘날 일본신문의 전형이 되다시피 됐다.

스즈끼訪美직후의 후유증으로 일어난 방위논쟁과 라이샤워의 핵함정기항문제등이 정치적이슈로 등장하자 요미우리는 재빨리 중참의원 의원들을 상대로한 앙케트조사와 자료들의 의견을 집약, 분석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각종통계와 도표를 그때 그때의 이슈에따라 알기쉽게 분석보도한다. 그것은 독자에게 서비스한다는 자세로 지면제작을 하는 증거다. 요미우리는 또 번돈은 독자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에따라 갖가지 문화사업과 세계의 미술, 음악을 소개하는 전람회와 연주회를 값싸게개최하는 특색을 갖고 있다.

모눈종이위의 生 <117>

趙善作 作 / 禹慶熙 畵

그림자놀이㉖

종업원은 나를 2층의 구석진 방 하나로 안내해 주었다. 방으로 안내해준다음 그는 곧 물주전자와 컵하나를 받친 쟁반과 숙박카드를 가지고 찾아왔다.

숙박카드는 클립으로 끼우도록 되어있는 하드보드 책받침에 여러장이 함께끼여있었는데, 맨위에는 방금 그가 작성한듯 싶은 카드가 그대로 끼여져 있었다. 그는 가짜이름 가짜주소도 쓰고있지 않았으며, 나는 묘한 느낌으로 그 낯익은 글자들을 재빨리 읽었다. 그와 내가 함께 여관에 투숙하곤 했던 옛날에는 그는 늘 가짜이름 가짜주소를 쓰곤 했었으며, 내이름도 『뭐라고할까? 김숙자라고 할까? 김숙자라고 하지뭐』하고 말하며 아무렇게나 적어넣곤 했던 것이다.

책받침에 끈으로 매달린볼펜을 들고 그가 작성한 정직한 카드를보면서 나는 마침내 생각이 났다는 표정으로 종업원에게 말했다.

『이거 그분카드 맞죠? 삼층에 모셨다는 분』

문께에 서 있던 종업원이 내 어깨 너머로 책받침을 보면서 의아한 표정을지었다.

『이분 유명한 소설가예요. 이름을 보니까 알겠어요』

나는 그의 카드를 빼어 책받침의 맨 밑에 끼웠다. 어쩌다 그의 카드가 맨위에 끼여 내게 찾아온 좋은 기회를 나는 헛되게 할수 없었다. 그것으로 나는 그의 방 번호를 알기위해 미심쩍게 굴었던 일을 종업원에게 그럴듯하게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단어 하나 하나를 조심해가며 내가 다시말했다.

『어디서 많이 뵌 분이다 싶었는데 역시. 신문이나 책같은데서 사진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나 종업원은 여전히 어리둥절해 하는 표정이었고 내가 무엇때문에 감탄해 하는가 짐작도 못하는 눈치였다. 나는 좀 절망의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3층, 이 그의방으로 찾아가 나에관해서 엉뚱한 말을 하지는못하리라고 생각했다. 설사 그런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는 이 여관에 자신의 얼굴을 알고있는 어떤 여성 독자 하나가 투숙한 모양이라는 정도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상상했다.

숙박 카드에 나는 가짜이름 가짜주소를 적어 넣고 숙박비를 지불했다. 종업원이 돌아가자, 비로소 나는 방의 구조와 비품들을둘러보았다. 그의방도 필시 내방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나로하여금 그런일을 하게만든 것이다.

도어에는 안으로 잠그게되어있는 흔한 실린더가 달려있었다. 도어 안쪽으로 욕실이 딸려 있고, 욕실옆의 좁은 통로를 지나야 침대와 탁자의자 두개, 화장대, 텔리비전 수상기, 옷장등이 배치된 방의 공간이 나타났다. 창이, 하나 있지만 창밖은 또 다른 건물의 벽이 막아서 있었다. 때문에 방으로 침입하는길은 오직 도어 뿐이었다. 나는늘 이런 여관방의 구조에대해서 절망적인 느낌으로 생각해왔던 터였다. 그가 도어의 실린더를 안으로 잠그고 잠든다면 나는 속수무책으로 밤을 세우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최악의 경우까지도 모두 생각해두었다. 그가 도어의실린더를안으로 잠그기 전,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하셨던 것처럼 미리 그의 방에 침입해 몸을 숨기고 있는 방법밖이다. 이것은 근래의 도둑들도 모두 애용하는 방법이다.좀 더럽긴하겠지만 침대밑이라면 제격이 아닐수 없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나는 그의 방 근처까지 접근하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각종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 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총 회 공 고

다음과 같이 아이스하키협회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1981년6월17일(수) 7시30분
장 소: 한 국 관

대한 체육회
카나다 지구
아이스하키 협회

한인연합상사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우리 한인연합상사는 HIT 도매상을 인수, 보다 더 교민들께 봉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 성실한 자세로 앞으로의 교민을 위하는 길을 계속 연구중에 있아오니,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우선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대표 김 현 모 외 일동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됐읍니다.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532-0602

"한인민족상" 시상식

때 : 1981년6월27일(토)상오11시 곳 : 토론토한인회관

◇전남長城의 대보름새벽에 올리는 生村당산祭。마을에서 엄선된 제관들이 정성껏 제사를 올리고있다。

民生의 현장을 뛰는 한국일보

奧地의 목마른所望 묻혀진 人間드라머 現地의 肉聲으로 생생하게 파헤치며 독자와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나눠

한국일보 移動讀者部는 지난 6개월동안 전국방방곡곡을 누볐다. 장장 2萬里에 이르는 取材旅程속에서 전국 大·中·小도시는 물론이고 산간벽지의 장터와 주막거리、落島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取材팀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뉴스의 축각에서 자칫하면 소외당하기 일쑤였던 地方의 독자들. 이들을 위해 신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를 고심하던 끝에 발족된것이 한국일보 移動讀者部였다. 지난73년、한국언론계 최초의 일이었다. 그후 이동독자부는 地方駐在 기자들의 발길마저 잘 닿지 않는 奧地에 역점을 두고 시골과 중앙을 연결시키고 독자와 더불어 기쁨과 설움을 같이하며 그들의 가려운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새롭고 무거운 使命感

이동독자부의 기능이 더욱 절실해진 것은 지난 연말께부터.

보다 새롭고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재편·보강된 한국일보 이동독자부가 활동을 재개한것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였다.

전북 扶安의 눈쌓인 해안에서 첫 취재활동에 들어가 2、3차로 교대된 취재팀은 혹한기의 智異山 외곽산록을 따라 국토를 西에서 東으로 횡단했다. 東西고속도로 예정노선에서시작, 그동안 8차 활동으로 전남·북、경남·북、충남·북、강원등 7개道의 구석구석을 파고들며 국민들의 밝혀지지 않은 어려움과 소망을 現地의 肉聲으로 기록해 왔다.

뒤따라 중앙의 언론각사들이 다투어 지방에 기동취재반을 파견、지방에서 새로운 형태의 취재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그러나 他社들의 지방현지 發信기사들이 대부분 민속、지방풍류、토산품、컬러사진에 의한 風光소개등 風物誌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는데 비해、한국일보의 이동독자부는 지역사회의 산업、행정、교육、文物등 사회의 기본골격을 구성하는 근본문제들과 거기에 얽힌 주민들의 크고 작은 소망들을 삶이 들추어 보였다。

버려진 사연을 活字로

한국일보 이동독자부는 활동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나도、오지의 주민들이 얼마나 지역사회의 주변뉴스에 목말라하는가를 기자의 현장체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비포장 지방도를 달리는 먼지낀 털터리 버스나 녹슨 1기통 연락선에 실려 들어오는 몇 장의 신문은 실로 그 부락이 갖는 상설적 文化현상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다。

그 신문지면에 중앙행정부의 거대한 정책 발표기사와 함께、나도 오지의 버려진 사연들이 생동하는 現地發 기사로 인쇄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의 기쁨은 실로 컸다。그들은 자신들이 중앙언론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라는 고립감을 해소하고、자신의 목소리와 사연으로 행정과 정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고 신문은 삶의현장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중앙각부처 출입기자들이 매일같이 벌이는 치열한 취재경쟁못지않게 지방도처에서 한국일보 이동독자부는 정말 보람찬 사명을 묵묵히 해냈음을자부한다。「體典치른 全州 過投資 후유증」(全州發·1월6일보도) 「春香고장의 매머드관광단지개발계획」(南原發·1월7일보도) 기사는 묻혀진 지방기사 개발의 본보기였다。

智異山산록의 「全羅·慶尙道접경지 引月장터」(1월21일)의 1천년을 이어온 보따리교역에 얽힌 산간지역주민들의 삶의 사연들은 이동독자부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인정이오가는 흐뭇한 이야기였다。

어느신문이나 과거에 한두번씩 취급한적이 있기는 하지만 시의에 맞게 다시한번일깨워준 「10년째소망 大邱직할시 승격」(1월23일) 五臺山속에 「강원도山間마을재현」(2월11일) 대보름날 새벽에 완벽하게 재현된 전남長城의 「生村 당산祭」(2월20일)기사는 우리고유의전통과 민속에 얽힌기사였다。

「진흥당도시光州」(2월21일) 「도서관入室 하늘의별따기」(2월24일) 기사는 발전하는 지방도시의 이면을 지적해준 기사로 행정당국이 후속조치를 서두르게해준 고발기사였다。

감회의우표보내기運動

「靈光굴비가 사라진다」(2월25일) 「93세村老의 만세증언」(3월1일) 가난·병고와싸우는 「병신춤의 1인자 孔玉振여사」(3월6일) 「국민학교병설中學校첫등장」(3월7일) 등등은 눈길을 끌었던기사였다。

「慶北道廳유치 줄다리기」(4월3일)와 「짝사랑4개都市(慶州·浦項·安東·龜尾)의 유치경쟁」(4월9일) 기사는 기획성과 기동성면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시의적절해 타지의 부러움을 산 한국일보이동독자부의 쾌거중의 하나였다。

「赤字양계、덤핑닭장」(4월28일) 기사도 그런 기사중의 하나였다。

「大邱藥令市부활」、大田市에 「女검침원등장」 기사는 타사지방순회취재팀이 훑고지나간후에 우리기자들이 찾아낸 구슬같은 빛나는 기사들이었다。

헌우표모으는 풀무학원의 드라코마운동은 73년2월6일 처음 이동독자부가 개발했던 人情서린 기사였는데 8년만에 다시 이동독자부가 찾아가 속보기사를 쓸수 있었던것도 한국일보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이동독자부는 올해들어서만도 8차의 활동을 통해 한국일보 10面과 11面에 모두 1백12건의 지방기사를 게재하는 놀라운 활동을 폈다。

이기사들을 유형별로 보면、행정과 주민의 괴리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기사들이 주종을 이루었고、그밖에도 지방건설사업、향토·민속소개、지방문화재보존、농어촌문제、고립행정문제에서부터 묻혀진 인간드라마 등을 통해 이동독자부는 신문사상 유례없는 지방신문의 각종기능을 집약시켜 놓은 종합 취재의 기능을 발휘했다。

이동독자부는 또 지방현지에 파견되는 기자들이 자신의 生命力과도 같은 취재력에 싱싱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국言論 최초의 機動取材
1천년이어온 「보따리交易」등구슬같은記事 발굴
風物보다 줄기찬「삶」에뿌리

9차의 旅裝을 꾸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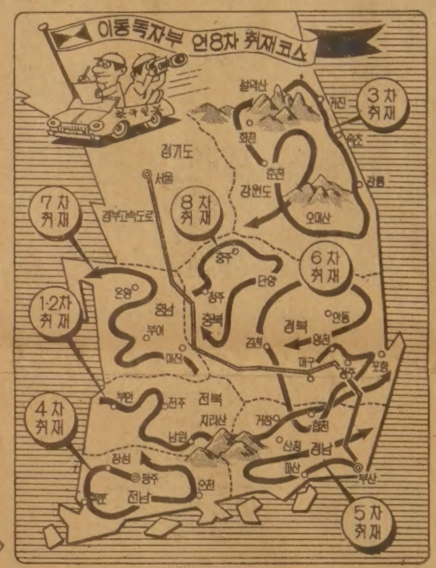
이동독자부 기자들은 자신의 취재부서 전담에 따른 전문성과 제약성을 일단 떨쳐버리고 지역사회의 도청、시청、군청、교육청、경찰서、노동부 지방사무소등 모든행정、치안관서를 두루 섭렵하면서 폭넓은 취재원을 접하며 「문제」의 핵심을 추적할 수 있었다。또 농협、수협、상공인단체、각종 문화단체、지역사회의 종친회 사무실、그리고 지방대학의 연구실까지를 훑고 다녔다。여기서 얻어지는 정보들은 대체로 완벽하게 짜여진 기사라기 보다는 취재를 위한 「실마리」정도에 불과했고、이동독자부 기자들은 이 실마리를 근거로 해서 지역사회의 관련 관청이나 기관을 상대로 심층취재를 벌였다。

또 기사내용에 따라서는 현지에서 얻어진 정보를 서울의 중앙관서에서 재확인하고 수정해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閑村의 저녁 주막에서 마주앉은 村老들과의 대화에서 취재를 위한 유익한 발단이 잡히는 수도 적지않았다。

기사는 고급관리의 책상서랍 속이 아니라 民生의 현장 속에 그 싱싱한 모습대로 얼마든지 널려있다는 사실을 이동독자부 기자들은 확인했던 것이다。8차의 장기출장에서 돌아온 이동독자부는 이제 9차활동을 위해 여장을 꾸려놓고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다。

【金薰기자】

이동 讀者部 2万里



이동독자부日誌

▲1차활동(80년12월25일~12월30일)=전북扶安,南原,淳昌,潭陽,全州일원

▲2차활동(81년1월7일~14일)=경남咸陽,居昌,陝川,高靈,山淸,達城,大邱일원

▲3차활동(1월23일~2월1일)=강원 春川,束草,雪嶽洞,巨津,江陵일원

▲4차활동(2월15일~2월24일)=전남光州,長城,靈光,木浦,新安,麗水,麗川,谷城,求禮일원

▲5차활동(3월3일~3월14일)=경남釜山,蔚山,密陽,梁山,咸安,南海,忠武,晋陽,河東,馬山일원

▲6차활동(3월20일~4월1일)=경북大邱,永川,慶州,浦項,盈德,安東,金海,龜尾일원

▲7차활동(4월17일~4월25일)=충남大田,瑞山,天安,大德,洪城,保寧,天原,燕岐일원

▲8차활동(5월23일~5월31일)=충북淸州,忠州,淸原,報恩,永同,槐山,陰城,中原,丹陽일원

한국、겨우 10位차지
亞洲陸上폐막 金花順·朴元根도 銅추가

【東京7日鄭=聯】 韓國은 7일폐막된 제4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남자5천m의 朴元根과 여자1천5백m의 金順花가 銅메달2개를 추가、총5개의 銅메달을 따내는데 그쳐 참가21개국중 10위에 머물렀다。

1위는 金19·銀20·銅15개를따낸 日本이、2위는 金11·銀4·銅2개의 中共이 각각차지했으며 印度는 金5·銀5·銅9개로 3위를 기록했다。

朴元根은 대회마지막날 남자 5천m에서 13분57초33의 한국신기록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朴京德은 14분11초38을 기록、6위에 머물렀다。

여자 1천5백m의 金順花는 4분30초81로 한국신기록은 세웠으나 3위에 그쳤다。

총38개종목의 경기가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신기록 7개(男2·女5)、대회신기록 11개가 각각수립됐는데 아시아신기록 중 4개가 中共선수들에의해 수립돼 주목을끌었다。

아시아 아마육상연맹은 제5회 대회를 오는83년 쿠웨이트에서 열기로결정하고 이번 대회성적을 토대로 오는9월 로마에서열리는 월드·컵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아시아대표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일전적 (7일)

▲남자 1백m=①수하르토·자에스라파르(泰國)10초2 ④徐末九(韓國)10초75 ▲여자4백m허들=①아오이·유끼꼬(日本)59초26(亞洲타이) ⑧田京美(韓國)1분03초22 ▲남자8백m=①라잔(印度)1분50초21 ⑥金福柱(韓國)1분51초83 ▲여자1천5백m=①장슈벤(中共)4분27초11 ③金順花(韓國)4분30초81(韓國新·종전4분31초4) ▲남자 1천6백m계주=①日本 3분7초6 ▲여자 1천6백m계주=①말레이지아 3분46초36 ▲남자 5천m=①고팔·싱 13분52초22 ③朴元根(한국)13분57초33(한국신·종전14분5초F) ⑥朴京德(韓國)14분11초38 ▲여자 1만m=①마쓰다·아께미(日本)33분13초22 ▲여자7종경기=①에·페이수(中共)5·445점

◇메달집계

	금	은	동
①日本	19	20	15
②中共	11	4	2
③印度	5	5	9
④泰國	1	4	1
⑤쿠웨이트	1	1	0
⑥말레이지아	1	0	3
⑦필리핀	0	2	1
⑧이라크	0	1	1
⑧사우디아라비아	0	1	1
⑩韓國	0	0	5

裵錫哲 판정승
60일내 타이틀 決定戰
WBA J밴텀급

한국의 裵錫哲과 아르헨티나의 구스타보·바야스가 프로복싱 WBA 주니어밴텀급 타이틀을 걸어놓고 오는8월중에 챔피언 결정전을 벌이게되었다。

WBA 동급2위인 裵錫哲은 7일저녁 문화체육관서벌어진 동급4위 라파엘·페드로사(파나마)와의 4강전에서 격전끝에 판정승、챔피언결정전에 나갈 자격을 획득했다。

WBA 주니어밴텀급 챔피언결정전은 WBA의 결정에 따라 4강전을 끝낸날로부터 60일이내에 치르도록 되어있으며 대전장소는 오는24일 美國 휴스턴서열리는 WBA 집행위원회서 결정된다。

이날 4강전에서 미국의 루디·조르단 주심은 115-115 무승부를 채점했으나 조·번사(미국)로우·태비트 부심(미국)은 각각 116-115、115-114 1점차로 裵錫哲의 승리를 채점했다。

이바라 타이틀탈환 WBA 플라이급

【부에노스아이레스7日AP=聯】 파나마의 루이스·이바라는 6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거행된 WBA 플라이급 타이틀전에서 챔피언인 아르헨티나의 산토스·라시아르를 심판전원일치의 판정승으로 제압、지난80년초 한국의 金泰式에게 타이틀을 상실한지 1년5개월만에 다시 플라이급의 왕좌에 복귀했다。

國際陸聯회장 來韓 올림픽施設 점검

국제육상연맹 폴렌회장(화란)이 한국의 88년도 올림픽 개최능력 여부를 조사하기위해 국제경기연맹(ISF)조사단 대표자격으로 9일낮12시50분 JAL편으로 내한한다。

美國세살박이 競馬콜로니 3冠王도전서 3位에그쳐

美國의 3대경마중 켄터키·더비와 프리크니스、두 대회를 석권한데 이어 6일 벨몬트·스테이크스(경마)에 도전했던 3살박이 수말 플레전트·콜로니는 뜻하지않았던 적수 서밍에게 1위를 빼앗겨 사상 12번째의 3冠王의 꿈이깨어졌다。홈·그라운드에서 벌어진 이번2·4㎞의 레이스에서 플레전트·콜로니는 서밍、하일랜드·블레이드에 이어 3위에 그쳤다。3살박이 수말의 3冠王도전중 마지막 벨몬트·레이스에서 실패한 것은 플레전트·콜로니가 10번째다。

조지·마르텐스가 고삐를 잡은 서밍은 스타트에서는 중간그룹에 끼었으나 반마일을 지나며 선두에 나서 줄곧 리드를 잃지 않았다。서밍의 1.5마일(2·4㎞) 주파기록은 2분29초로 대단한 스피드를 보였다。하이랜드·블레이드로 2위를 차지한 기수 신트·바스케스는 지난해에도 이 벨몬트·레이스에서유명한 암말 제뉴인리스크를 타고 2위를 차지한바 있다。제뉴인·리스크는 지난해 켄터키·더비 1위、프리크니스와 벨몬트에서 2위를 차지、美경마에 암말선풍을 일으켰었다。【뉴욕=聯】

"드라마틱한 연출"

흔히 정신적·육체적 장애자들은 오늘날 같은 복잡한 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제장애자의 해를 맞아 우리는 보통이상의 일을 해냈읍니다. TV 상업광고를 만들은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 작품을 위해 68의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이중 42명이 정신적이나, 육체적 장애자들이었읍니다.
이들 가운데, 감독, 카메라맨, 무대장치자, 목공들, 전공, 분장기술자, 효과담당자, 아나운서, 많은 음악인들과 작곡가들이 베토벤을 연상시키는 범어리들입니다.
당신이 그 광고를 보셨다면 합동해서 일할때 어떤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광고를 아직 못보셨다면 장애자들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자로 태어난 우리들이 외치고 싶은 구호는 "우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Ontario
Margaret Birch
Provincial Secretary for Social Development
William Davis
Premier
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1981

純直한 紙面·流麗한 文體·여리한 判斷

'우리는 27년讀者-이젠 한家族같아요'

두元老여류作家 한국일보를 말한다

○… 여류소설가 孫素熙씨와 韓戊淑씨는 한국일보를 제1호부터 읽어온 創刊 독자들이다。이 두원로 여류가 한국일보 창간호를 받아 읽기 시작한 때는 한창 풋풋한 30代中盤이었다。이들은한국일보를단한달도 거르지 않고 읽어,한국일보紙面의 成長27년을 손 가까이서 열심히지켜보았다。이들은 또한 한국일보의 年輪과 나란히 作家로서의 위치를 두드러지게 쌓아왔다。두여류가 나누는 對談을 통해 독자가 보고있는 한국일보의 「얼굴」과 「個性」을 알아본다。…□

▲韓戊淑씨=저는 상당히 꼼꼼하고 성실한 독자에속합니다。한국일보의 各面을 거의 빠지지 않고 들여다보지요。재미있는 기사나 흥미있는 기사는 정독하고 스크랩을 하기도해요。특히 기획기사는 빼지않고 읽고 있어요。

▲孫素熙씨=제경우는 그저 꾸준한 독자라고나할까요。시간이 있을때는 이리저리 신문을뒤적여좋은기사를 읽지만 시간이 없을때는 대충제목만 훑고 지나갑니다。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부터 찾아 읽는버릇이 있으니까 호흡이 긴 꾸준한독자인 셈이지요。

▲韓=한국일보는 처음 題字가 썩 마음에 들었지요。다른 기존신문들은 거의 漢字로 돼있는데,한국일보만은 한글題字를써서 전혀 새다르고 신선한 느낌이었어요。저는 그 흘린 글씨체로 쓰인 題字가 좋아서 한국일보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孫=한국일보 창간 무렵에는 색다른 특징이 많았어요。발행인이 손수 신문뭉치를 들고 먼데까지 나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신문을「배달」하며 한국일보의 評을 일일이 들어 본 적도 있었어요。그런 뜨거운 熱意를 보면서 저는 뭔가 열심히 지원해주고 싶은 기분이 들었었지요。한국일보는 초창기부터 읽을 거리의 기사가 많았어요。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이야기나,우리가 모르고 있는 큰 사건들을 열심히뒤져내서 소개하곤 했지요。대담한 사업도 많아 이산가족찾아주기운동이나 장편소설공모와 같은 사업은 한국일보만의 아이디어였어요。

▲韓=저는 한국일보에 연재소설을쓰면서 더욱 깊은 緣分을 맺었어요。58년에「빛의 階段」을 연재하면서 한국일보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지요。그 후 한국일보가 文人들에게 넓은 지면을 주어서 여러가지 종류의 隨想이나 論評등을 빈번하게 기고했어요。

그래서 한국일보에 대해선 남다른 애착을 느끼고 있지요。마치 한국일보 바깥에 있는 한국일보家族의 한사람이라는느낌은 어쩔수가 없어요。孫선생도 이점에서는 저와같은 느낌이실것 같아요。그렇지요?

▲孫=네。정말이에요。저도56년에 연재소설「太陽의 詩」를쓰면서 한국일보와 因緣을 맺었어요。「太陽의 詩」는 별로 좋은 평은 받지못했지만,그후 다시 연재소설「사랑의 季節」을 쓰게 됐어요。이후부터 한국일보에 여러가지 글을 수없이 기고해 왔어요。한국일보가 관련된 일이라면 마치 나의 일처럼 생각될만큼 감정적으로 밀착돼 있지요。한국일보의 부수가 더욱 증가하는 기세이 있으면 저희집안의 慶事나 되는것처럼 기분이 좋아져요。

▲韓=한국일보는 다른 신문에 비해서 뚜렷하게 잡혀지는 개성이 몇가지있지요。우선「잘 해보겠다」는 熱氣가 느껴져요。각종 기획기사와 아이디어 기사가 많이 나타나지요。그런 특집기사에는 진한 땀을 흘린 자국이 역연하고,기사의 내용도 치밀하고 상세해서 호감을 주어요。기사란 늦을 때도 빠를 때도 있는 것이겠지만,중요한것은 뉴스의 문젯점을 깊숙이 파헤치는 성실한 붓끝인것같아요。

孫素熙씨

韓戊淑씨

▲孫=한국일보를 읽으며 저자신 놀라는 때가 많아요。기사가 정확하고 성실한 점에도 마음이 끌리지만,기자들의 글이 그렇게 유연하고 독창적일수가 없어요。요즈음 기자들은 글을 아주 잘쓰는것 같아요。그 매끄럽고 정확한 文體는 우리 작가들이 배울데가 있지요。그런데 아직도 저항감을 느끼는 단어가 가끔 튀어나오기도해요。

가령 사회면기사에서 나타나곤 하는「여인」「노파」등의 호칭이라든가 젊은 학생들사이에서나 쓸것 같은 거칠고 야한 단어들만 날때도 있어요。한국일보는 대체로 기사의 내용이 성실하고 정직한것 같아요。잘판단하지 않은채 성급하게 손다거나 억지로 꾸며쓰는 것이 없어서 좋아요。햇수로는 아직 靑年의 나이지만,점잖고 純直한 人品을 지닌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韓=가끔 이런때가 있어요。저희는 한국일보와 夕刊한지등 두신문을 보고 있어요。그런데한국일보에는 어떤인물의 스케치기사에서「회색 수트」를 입고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데,석간 신문에서는 똑같은 인물이「청색수트」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우리신문에서는 이런경우가 간혹있는데,정확한 눈을가져야겠지요。

▲孫=제목이 세련되지 않은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있어요。서릿발처럼 기사의 핵심을찌르는 날카로운 제목도 많이 나타나지만,기사의 내용을 압축하지 못하고 진성으로 붙여진 듯한 성의없는 제목도 보여요。시간이없어 제목만 읽고 지나가야할 경우도 있으니까 신문의 큰 제목이나 작은 제목은 대단히 중대한 역할을 맡지요。韓선생은 신문을받으면 무슨 기사부터읽으시는지요。

▲韓=우선 문화면부터 읽어요。그리고「메아리」와「地平線」등의 칼럼을 읽지요。그다음에 만화「블론디」를 읽고,사회면과기타 외신면을 읽어요。

文學기사는 빠지지 않고 읽어요。한국일보에는 초창기부터 문학기사를 많이 다루어「名作의 故鄕」「文學散策」「新古典」등

文學·家庭기사서 느끼고 배우죠

성실한 붓끝…땀이 뚝뚝 흐르는듯

企劃·아이디어 逸品 끝없이 愛着

의욕적인 기획기사를 많이 제공했어요。요즈음은「훨러 紀行 세계 문학전집」이 아주 좋은 것같아요。

▲孫=저도 역시 문화면부터 읽고,그다음 정치면 사회면으로 넘어가요。저는 역사와 관계된 학술기사와 文化財기사를 즐겨읽지요。종교기사중에도 좋은 내용이 많아요。한국일보의 연재소설중 두편을 매일 읽어요。최근에는「流星의 賦」에 나오는 그림한 커트가 가슴을 확 찌르는 것이 있어서 오려 두었어요。이 그림을 책상위에 놓고 들여다 보곤하지요。신문은 읽는 신문이지만 보는 신문이기도 해야 한다고 믿어요。신문의 사진과 그림도 기사의 한 종류라고 생각해요。좋은 사진,좋은 그림이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韓=연속으로 나오는「아내의 삶」도 거의 다 읽고있어요。「아내의 삶」은 너무나 좋은 기획이에요。그 기사를 읽으면서 눈 시울이 시큰해온 적이 많아요。「아내의 삶」을 읽을 때 마다 저의 생활중에서 반성되는 것이 한 가지씩 늘어나곤 해요。孫선생은 여성난을 얼마만큼 읽으시는지요。

▲孫=이런 이야길 하면 부끄러울것 같아요。하지만 저는 집안의 살림살이만으로 自足해요。집안의 살림살이도 지겨운데 신문에서까지 살림살이 이야기를읽고 싶지 않아서 여성난은 거의읽지 않아요。그러나 韓선생은 저와 정반대이시죠?文壇에서도 요리의 선수,살림살이의 선수로 불리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만일 살림살이 대회라는 것이 있어서 韓선생이 나가면 거뜬히 단연 특등을 차지할 거라고 하더군요。

▲韓=층층시하 큰가족 살림을 맡다보니 살림에 매달릴 수 밖에 없지요。몇년간 가정부도없이 혼자 하다보니 그런 병까지 얻었나봐요。저는 가정난도 열심히읽어요。살림대회에 나가 일등을할 거리지만,가정난 기사에서 얻는 것이 많아요。요리기사도 참고되는것이 많고,생활의 지혜와같은 기사에서도 얻는 지혜가 있어요。

한국일보 가정난 기사는 자상한 편이어서 생활에서 활용되는 기사를 만나기도 하지요。요즈음은 가정난에 女權문제와 관계된 기사가 자주나오더군요。그런기사도 열심히 읽고 있어요。

▲孫=요즈음 독자들은 옛날독자들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제가「太陽의 詩」를 연재할때,그 소설이 그다지 재미있는 소설이 아니었는데도 독자들의 편지가 많이 날아왔었지요。

이 소설의 마지막회에서 눈물의 빛깔을 옅은 보라빛깔로 묘사했는데 그때 많은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어「눈물의 빛깔」을 분석한 소설가는 처음일것이라고 칭찬해 주더군요。그런데 요즈음독자들은 연재소설가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 없나봐요。요즈음 작가중에 독자편지를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韓=그래요。저도「빛의 階段」을 연재할때 사방에서「주인공 남자가 바로 나인 것 같다」는 편지들이 날아왔지요。그 소설의 주인공은 흔히 매력형으로 꼽히는 타이프의 청년/지식인이었거던요。

▲孫=저는 항상 한국일보와의 緣分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지금까지와같이 앞으로도 박력있는 신문,활기찬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정확하고 친절한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록=具滋英기자〕

KIM'S
카메라및 트로피
각종카메라 전자제품·환매 수리
여권사진 즉석촬영
619 BLOOR ST. W. TOR.
☎ 534－1085

나약한 10代 投身自殺

「吸煙」싸고 싸움…피해學父母 으름장

7일 하오1시께 서울東大門區典農4洞183의6 典農독서실(주인 吳재환·23) 4층옥상에서 S고3년 郭尙元군(18·서울東大門區典農1洞)이 12m아래로 투신,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사건은 딸기서리를 추궁받고 음독자살을 기도했던 두소녀의 경우와 비슷한 것으로 학부모나 어른들의 이해성있는 선도가 아쉬움을 일깨워준것이나 요즘 10대들이 너무나 충동적이고 나약함을 드러낸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郭군은 이날낮12시께 독서실 사무실에서 지난5일싸운 D고2년 金모군(17)의 어머니 鄭秋子씨(46·서울東大門區踏十里1洞236의10)와 C고2년 趙모군(17)의 어머니 裵癸先씨(47·서울東大門區龍踏洞95의9) 등 4명이 치료비를 요구,치료를 해주지않으면 학교에연락해 퇴학시킨뒤 형사입건시키겠다고 다그치자 울면서옥상으로 뛰어올라 아래로뛰어내렸다。

郭군은 지난 5일새벽1시께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金군과 趙군등을 옥상으로 불러「왜 선배를 몰라보고 담배를 함부로 피우느냐」며 이들을 때려 金군의 앞니가 흔들리고 趙군의 눈이 붓는등의 상처를 입혔었다。

옥상에 있다 郭군이 뛰어내리는 것을 목격한 崔입갑군(20·長安실업전문대1년)에 의하면 郭군이 울면서 뛰어올라와 옥상 난간에서「너희들 죽어서 보자」고 소리친뒤 붙잡을 틈도 없이 뛰어내렸다는것。

郭군의 담임교사 尹慶一씨(43)에의하면 郭군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착실하며 생활에별 어려움이없이 지내왔는데 폭행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고 형사입건된다는 것이 두려워 자살한것 같다고 말했다。

梁亨道군 쾌활한 모습

저항력강해 醫師들 낙관

梁亨道군(11)은 수술4일만인 8일하오2시 심장수술환자들이 수용되는 漢陽大병원 1522호실에 입원,정상어린이가 되어가고 있다。지난달24일 원한지 16일만이다。

於藥국교 柳相錫교장(55)과 아버지 梁相俊씨(46)도 4일하오 상경,梁군의 손을 잡고「욕봤데이」를 연발하면서 기쁨에겨워 어쩔줄을 몰랐다。7일하루동안 全身마취가 아프다고 하던 亨道는 8일부터는 통증이 줄어든듯 쾌활한 모습이 됐는데 주위에서는「참을성이 강하다」거나「환자치고 쾌활하다」고 칭찬하고있다。

집도의 朴永寬교수(42)는「亨道가 예상보다 더회복이 빠른편」이라면서「이런상태라면 2달이 못돼 퇴원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수술후의 환자들에게 생길지 모르는 의식의혼탁、시간·장소에대한 분별력상실등은 다른환자들처럼 亨道에게도 위험이 있으나,워낙때묻지 않은 시골어린이로 유의병에대한 저항력이 강해 걱정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고5千萬원 보상 慶山열차사고

【慶山=聯合】慶山열차추돌사고 수습대책 본부는 8일 사망자 56명중 부산지방 철도청관내 20명의 유족에게 최고 5천2백47만2천27원에서 최저 4백49만3천4백원까지 모두 3억3천46만3천8백33원의 보상금을 찾아가도록 통보했다。

보그 4連覇 눈앞에

佛 오픈테니스 렌들과 결승전

【파리6日聯合】스웨덴의 테니스 스타 비욘·보그(25)는 5일 롤랑가로스타디움에서 벌어진 81년도 프랑스 오픈 테니스대회 준결승에서 파라과이의 빅토르·페치를 위력적인 그라운드·스트로크로 6-4、6-4、7-5로 제압、대망의 4連覇、6번째 대회우승을 바라보게됐다。

보그는 6일로 그의 25번째 생일을 맞았다。

한편 체코의 新星이반·렌들(21)은 1m94의 장신을 이용한 강력한 서브와 발리로 4시간반에걸친 격전에서 아르헨티나의 호세·루이스·클러크에게 3-6、6-4、5-7、7-6、6-2로 역전승、결승서 보그와 겨루게됐다。

流星의 賦 <100>

李炳注作
李友範畵

紀昌의 길 ⑨

엄도익의 말뜻을 홍계남이 속속들이 알아들을순 없었지만 어린 마음으로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김달손과의 말가운데

「사람과 만나기가 싫어 산속에서 살다가 보니 필요에 따라 활을 배웠지만 나하나 살기위해 너무나 많은 살생을 한것같아 그것이 한스럽다」

는것이 있었는데 이에 덧붙인

「사람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일이、아닐땐 살생을 삼가야한다」

는 말이 두고두고 계남의 가슴에 새겨졌다。

엄도익의 집을 나온 김달손은 홍계남을 단종의 능으로 데리고갔다。

어린 나이로 임금이 되었다가 숙부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이윽고 죽음을 당한 단종의 얘기는 계남을 슬프게 했다。

달손은 또 단종이 귀양살이를 했다는 섬으로도 가보았다。삼방이 강물이고 한쪽으로 절벽이 되어 있는 외롭고 후미진 곳에 한때 임금이었던 사람이 혼자 살았다고 들으니 가슴이 저미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편 그런 비운(悲運)에 비하면 설움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견디지 못할 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숙부가 조카를 죽여도 괜찮았을 까요?」

계남이 달손에게 물었다。

「그 숙부가 임금이 되었으니、누가 뭐랄 사람이 있었겠나」

하는 달손의 말이었지만 계남이 납득 할 수가 없었다。

「임금이니까 할 수 없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을 백성들이 임금이라고 받들 수 있었을까요?」

「받든 사람이 있었으니까 임금이 되지 않았겠나」

「백성들 같으면 숙부가 조카를 죽였다고 하면 큰 일이 나겠지요?」

「큰 일이 나다마다 능지처참을 당할 죄가 되는거지」

「백성은 죄가 되는데 그 사람은 임금이 되다니」

「세상이란 그러한거다。그러나 끝끝내 그것을 불의(不義)라고 해서 항거한 의사(義士) 열사(烈士)들이 있었다」

며 김달손은 성삼문(成三問)을 비롯한 사육신(死六臣)을 얘기를 했다。

「그분들이야 말로 훌륭하군요」

「훌륭하지 훌륭하다 뿐인가」

하고 김달손은 의(義)를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언급했다。

「아까 엄도익 영감이 사람을 대하기가 싫어 산에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어른은 이러한 세상에 염증을 느꼈다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김달손은 엄도익의 고조 할아버지가 단종의 시신(屍身)을 몰래 간수했다가 아까 그곳에 정중히 매장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어때 계남아、이것 저것 뒤숭숭한 세상에 살기 보다 우린 산중으로 가서 수양이나 하고 도술이나 익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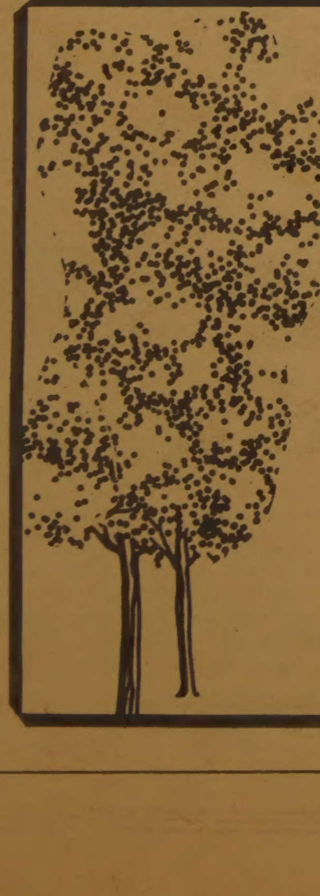
「도술이 뭔데요」

「신선이 되는 길이다」

「신선이 뭔데요」

계남의 질문은 끝 가는델 몰랐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성대 동창 야유회

성대 동창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처음 맞는 제1회 여름 야유회에 동창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가족동반하시고 부디 참석하셔서 즐거운 하루를 보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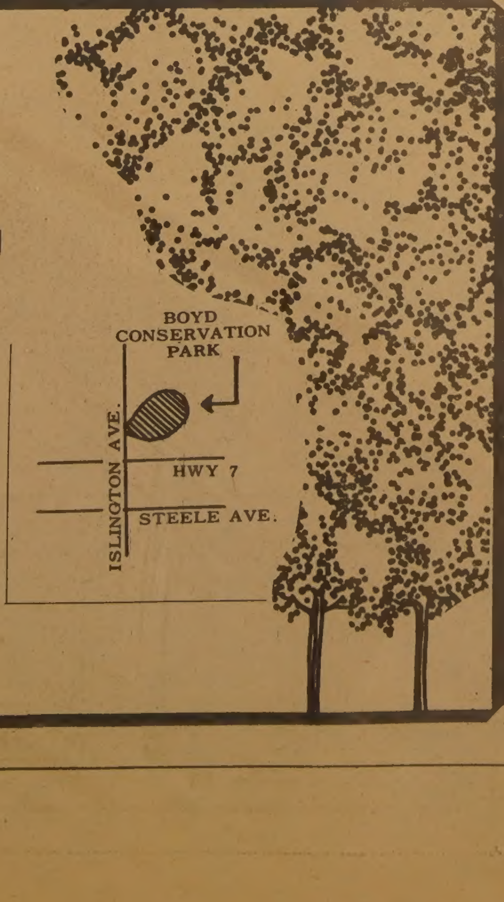
일 시 : 1981년 7월5일(일)오전11시

장 소 : BOYD CONSERVATION PARK오전11시 (Islinton & Hwy7북쪽)

※모든준비(음료수·불고기)는 동창회에서 합니다. 입만 갖고 오세요.

연락처 : 회장댁 : 884－2608, 총무댁 : 884－0284

성대 동창회장 김 영 태



"오늘부터 저녁먹고나서 한참동안 산보하기로 했어"
—크윽—
"당신이 한참동안 산보하는걸로 생각 했는데요?"
"소파까지 산보 했잖아, 안그래?"

가나안상사
무료견적, 무료 I 래부, 무료공사, 싼공전, 카텐, 카펫 브라인드, 각종카바.
유원덕
2390 LAKE SHORE BLVD. W.
☎ : 252-4857

대낮에 조는「제트·래그」

감기다음으로 잘걸리는 平凡한 질병

심하면 초조, 不安, 두통에 기억상실 하기도
키신저, 밴스는 世界 뺑뺑돌고도 끄떡 없어
특효약 따로없고 휴식취하고 적당한 運動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낮과 밤이 뒤바뀌어 상당히 혼란을 느낀다.

밤엔 잠이 잘 오지 않고 대신 낮엔 꾸벅꾸벅 졸거나 초조하고 불안하며 때로는 두통까지 생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미국에는 시차가 있는데 사람의 몸이 빨리 이에 적응되지 못했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여행으로 생긴 물리적 시차에 대하여 신체적으로 재빨리 적응하지 못하여 생기는 신체적 불균형이나 피로를 「제트·래그(JET LAG)」라고 한다.

제트·래그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약15%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별로 제트·래그를 느끼지 않는다.

제트·래그를 느끼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전 국무장관들인 헨리·키신저와 사이러스·밴스.

그들을 수행하여 여러나라를 방문한 바 있는 LA타임스지 워싱턴 특파원 오스왈드·존슨기자에 의하면 키신저나 밴스는 국제간 여행을 할때 아무리 여러번 시차가 바뀌어도 태연하게 비행기에 마련된 침대에서 잠을 자며 비행기에서 내린후에도 별지장없이 거뜬하게 임무수행을 해냈다는것.

그러나 그들을 수행했던 존슨기자는 특히 밴스가 코를 골며 잘 때는 제트·래그로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털어놓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슨기자 처럼 시차가 생기면 제트·래그로 상당히 고생한다.

심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기억력까지 상실할 정도다.

LA에사는 한 수학자는 매년 베이루트에 있는 집을 방문하는데 도착 2~3일동안은 아무리 친한 친구도 못알아보고 어떤때는 가족도 못알아 본다는것.

LA에서 여행사를 하는 한 여인은 홍콩에 갔다가 돌아와 2주동안 잠을 이룰수 없어서 『아주 죽는줄 알았다』고 술회했다.

TWA에 근무하는 바니·웨브양은 4년이나 기상근무를 하였는데도 아직도 제트·래그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고참 조종사는 자신의 제트·래그가 아주 『지속적』이라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해간다고 했다

3년전 남미에서 이륙하여 LA공항에 착륙하기로 되어있는 어느 비행기는 조종사가 시차때문에 조종실에서 조는 바람에 태평양으로 날아갔다가 돌아온 경우가 있었다는이야기도 있다.

제트·래그는 어떤 때에는 혈압, 맥박, 신장, 소화기, 홀몬수준 또는 사고작용 같은 신체적 기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한번 시차가 생길때 마다 하루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LA에서 파리까지는 9번의 시차가 있으므로 9일간의 시간이 지나야 신체적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설명이다.

UCLA의과대학의 존·헨리박사는 오랫동안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제트·래그의 한 증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많은 외교관들이 장거리 여행을 했을때 그들의 약속을 최소, 24시간 이후로 흔히 연기한다는 것이다.

헨리박사는 제트·래그는 감정적 발작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제트·래그로 인한 발작현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먹고 많이 마셔 절과적으로 나태해지고 흥분하며 흔히 불면증에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비행중 위급상태를 대비하고 또 뇌의 수면기능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면제복용은 금물이라고 했다.

「바디·리듬」이라는 책을 쓴바 있는 리·웨스턴은 제트·래그를 『감기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잘 걸리는 평범한 질병』이라고 기술했다.

제트·래그는 보통 동반구와 서반구를 왕래하는 비행기를 타는 사람에게 생긴다.

쥐를 사용한 실험연구에서는 시차를 자주 경험시킨 쥐는 그렇지 못한 쥐보다 더 빨리 죽었다고 밝혀졌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웨스턴의 책에도 인용되었다.

뉴욕의 어느 조종사는 유럽에 파견되어 근무했었다.

약5년에 걸친 파견근무를 마치고 뉴욕에 돌아 왔을때 그는 그의 동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다같은 동년배 조종사들인데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늙어 보였기 때문이다.

웨스턴은이렇게 기술했다.

『그 조종사가 사실을 알기까지는 여러주일이 걸렸다. 즉 늙어 보이는 조종사는 동서반구를 주로 비행했고 그렇지 않은 조종사는 남북항로를 비행했었다』

시차가 있는 지역에 운항되는 비행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제트·래그의 해결방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자기들 나름으로 무진 애를 써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방법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년전 동부의 여러 기자들은 한가지 꾀를 내었다.

그들은 유럽으로 취재하러 갈때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방법을 썼다.

그들은 아침 8시15분에 보스턴을 출발하여 당일 오후 3시45분에 파리로부터 다시 돌아왔다.

보스턴에서 파리까지 다녀오는데 모두 7시간10분이 걸렸다.

그동안 갈때 6번과 올때 6번을 합하여 모두 12번의 시차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제트·래그를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취재후 곧장 돌아왔기때문에 그들의 몸이 유럽에서의 시차에 적응되기 이전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제트·래그는 보통 3~4개의 시차변동이 있는 지역을 비행한 후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생긴다고 한다.

제트·래그에는 감기와 마찬가지로 특효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은 며칠동안 휴식을 취하면 자연히 제트·래그의 증상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자신이 조종사이며 수년동안 제트·래그에 대하여 연구해온 산타모니카의 의사 W.L. 막씨박사는 휴식과 운동이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처방했다.

그밖에 자주 여행하는 사람들의 제트·래그를 최소로 줄이기 위한 몇가지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피로는 최고의 적이다.

둘째, 가급적이면 오후 늦게 또는 이른 저녁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도록 한다. 이것은 곧 바로 취침할 마음상태를 갖게 해 준다.

셋째, 비행기를 타기전이나 비행중에 가볍게 식사를 하고 술을 삼가한다. 술은 기내압력에 의한 탈수현상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어떤 여행자는 비행중 매 한시간마다 물을 한컵씩 마신다.

넷째, 수면제를 복용치 말라. 그것은 피로를 증진시킨다.

다섯째, 담배를 피우지 말라. 담배는 술과 함께 산소흡입을 감소시킨다.

여섯째, 비행중 그리고 비행후 운동을 한다. 장거리 여행은 순환기계통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한다.

일곱째, 커피나 홍차대신 쥬스를 마신다. 커피나 홍차도 탈수현상을 가져온다.

◇비행기 여행의 홍역 『제트·래그』—시차가 있는 지역을 비행기로 여행하면 물리적 시간과 신체적 시간이 재빨리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제트·래그를 느낀다. 파학자들은 한번 시차가 생길 때마다 하루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188〉

담당 민병철
【美 트루먼大 영어연구원장】

SOONER OR LATER

1천500만달러라는 권투사상 최대의 대전료(the largest purse in boxinghistory)를받고미국의 Sugar RayLeonard ($7million) 와 파나마의 Roberto Duran($8million)이 재시합(rematch) 때의 일이다。

경기가 8회에 접어들자 갑자기 챔피언인 Duran이 기권을 한후 은퇴를 선언하자 많은 권투관계자와 fan들이 싱겁게 끝나버린 경기에항의를 하게되었고 중계방송사회자는 Duran의trainer에 Aren't you surprised that he quit boxing?(듀란의 은퇴에 대해 놀라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였다。 코치는 I,m not surprised. He'll quit boxing sooner or later anyway. (놀라지 않는다。 언젠가는 결국 은퇴를 할터이니까)라고했다。

여기서 sooner or later란ultimately (결국에), 혹은At some unknown time in the future. (미래의언젠가) 의 뜻으로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돌아올 사실」을 내포하는 말로서 회화에 자주쓰이는표현이다。

「만일 그가 계속해서 지각을 한다면 언젠가는 결국 직장에서 파면될 것이다」 If he continues to be late, sooner or later he'll lose his job. 「언젠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그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것이다」 He'll pass the bar sooner or later.

많은 교포들이 하는말이있다 「지금은 미국에 살고있지만 언젠가는 나의조국에 돌어갈 것이다」 I'm living in America now, but I'll return to my homeland sooner or later. 라고。

Jack's late for work again?
Yeah, I think so·
Is he always late?
Yeah, He's been late for five days in a row.
Then maybe he'll be in troble someday
If he continues to be late, sooner or later he'll lose his job.
You bet he will.

잭이 또 지각인가요?
네, 그런것같은데요。항상늦어요?
네, 닷새동안을 계속해서 지각입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겠군요。
만약 그사람이 계속해서 늦는다면 결국에는 직장에서 쫓겨날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겁니다。

※purse: 현상금, 여성용핸드백
pass the bar: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다。
Jack's late for work agnin?: 이와같이 서술문에서도 회화체에서는끝만 올려주면 의문문의 역할을 하게된다。
in a row: 연달아, holidays in a row: 연휴 Ex. We have three holidays in a row.

구 인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
좋은가격, 항상 일이 있음.
☎ : 535-5591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지렁이잡이 원함(유경험자) :
휜치와 웨스톤지역, 최고가격
☎ : 243-7736 미스터 리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유경험자 지렁이 잡이 구함
5명에 한하여 승용차로 모심.
☎ : 881-1962; 221-7500

재봉사 구함(LADIES' SPORTSWEAR)
번봉, 오바로꾸, 단, 풀타임, 파타임 or PIECE WORK
292 PARLIAMENT ST. AT DUNDAS ☎ : 362-2300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 일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지불, 우수한 이익, 600 SPEEDROCK DR. DOWNSVIEW
☎ : 630-7777 LOUIS

스토아 매니저 구함
$15,000, 보증금 요함, 수입 $3,000 개런티
☎ : 635-9585

스토아 매니저 구함 :
신원이 확실하고 보증인요. 대우2500불 이상
몬트리올 지역임 ☎ : 514-932-7775 미스타 조

스토아 여자 캐쉬어 구함
(토, 일요일, 12~8시까지)
☎ : 921-0624

도넛샵 카운터 헬퍼구함 :
☎ : 781-5174 미세스 정

20세 전후한 남녀
풀타임 캐쉬어 구함.
☎ : 742-0800

입주하셔서 애기 봐 주실분 구합니다 :
미세스 하
☎ : 665-4835

웨이트레스 구함 :
☎ : 536-0295
한 국 관

재봉사 구함 (남·여)
●약간명 ●유경험자 ●좋은 대우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재봉사 구함 :
KEELE & LAWENCE 주간및 야간
☎ : 243-3330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ASKING $20,000+스탁
☎ : 844-2922 392 KEER ST., OAKVILLE

가게 팝니다 :
아파트 코너에 있음
☎ : 252-7982

성업중인 햄버거 샾 급매
다운다운지역
☎ : 535-2804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가장 적당한 Offer를 주시는 분에게 팔고자 함.
☎ : 465-4003

스토아 매매 :
10 MONTHS OLD, 좋은위치
☎ : 282-7596

FISH & CHIPS스토아매매 : 다운타운내에 좋은위치
리스5년, 렌트 $700. 오전10-7 : 30(월~금)
ASKING $45000 ☎ : 366-1332

코너 바라이어티 스토어와 빌딩급매 :
2층은 3 베드룸 살림집
☎ : 1-529-0018 해밀턴 미스타 킴

벡커 프렌차이즈 스토아 매매
2372 WESTON RD.
☎ : 249-3548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주매상 $4500이상, 리스3년+5년 옵션
☎ : 769-5956 3261 DUNDAS W.

그로서리 스토아및 빌딩 팝니다 : 이층 벽돌 건물이며 장래성이 많고 TUCK SHOP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음.
☎ : 781-7080 458 CALEDONIA RD.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6200~$6500이상, 렌트(스토아+2베드룸+지하실)
+로타리 MACHINE, $590, 리스5년 내방요함 3884 BLOOR W

77년 OLD MOVIL STATIONWAGON) Custom Crusier(
52,000마일 GOOD CONDITION $4950
☎ : 224-1907

밀 크 스 토 아 급 매
☎ : 277-3745

좋은 비즈네스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1. $30,000보증, buy-back계약.
지렁이를 사육함으로써 년 $25,000, 순수익 part-time)을 얻읍니다. 당신의 지하실이나 차고를 이용할 수 있읍니다. 투자금액은 $3890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821-2151로 전화 바랍니다.
DELITE ECOLOGICAL SYSTEMS
6533 MISS. RD. L5N 1A6

비즈네스 급매 : 좋은 위치에 자리잡은 간의식당(Fast Food)
Sherway센터안에 있음, 은퇴상 팔고자 함. Asking $95000
☎ : 233-9866

짧은시간에 수익좋고 다른메뉴 일체없는 Fish & Chips
2865 Jane St. 오후2시~7시 이후 상의 바람.
☎ : 633-6281

스토어 EQUIPMENT와 STOCK 팝니다.
1500 sq. ft 이상을 꾸밀수 있는 A급 장비임
☎ : 241-7115.

그로서리스토아 매매
$59000 가게, 월 렌트 $450.
☎ : 977-0578 Ask Anna Chent
K. SEE REAL ESTATE INC.

①번잡한 다운타운 지역에 자리잡은 버라이어티스토아
주매상 $3,500, ASKING $29,000
②하드웨어스토아(DANEFORTH AVE.)
주매상 $2,500, ASKING $39,000+스탁
CALL : TRUSTWELL REALTY REALTOR
☎ : 361-1226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제인·파크 꽃집〉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꽃꽂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 769-0609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 751-5851 이 률 한

정 촌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1)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2)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 집 크로스웨이 (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크리스티미용실 (크리스티 서브웨이 건너편)
남녀 노소 커트, 셋트, 파마 전문
727 Bloor St. W. (B) 533-2569. (R) 967-1518 미세스 박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SOO. PIANO SERVICE 222-4662
SIMSON'S의 써비스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회사. 조율 액손조정, 건반, 캐비넷칠; 중고매매. 김 수 웅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이삿짐및 운송

이삿짐및 각종운반, 피아노 COOLER
☎ : 630-66 나 라 운 수 6602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신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수 뜸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자동차, 집유리 설치, Repair합니다.
보험청구등 자동차 실내장치도 합니다.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3-0656(B), 493-7185(R)
정 해 문(휜치×킬)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번 달 원

에어콘·히팅·냉장고

각종냉장고 (가정용및 상업용)
ELECTRIC STOVE수리전문
☎ : 466-4304, 469-3341 박 기 창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추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86-5655, 531-5440 이 황 영

구 혼

구 혼
본인은 캐나다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각오가 되어있는 남자로써 저와같이 평생을 동고동락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고 있읍니다.
본인 : 28세, 대졸, 5'8", 150파운드, 독서에 취미있음
연락처 : 416-241-5438(Collect Call무방)

집·방세·하숙

1 베드룸 아파트먼트 FOR렌트
킬과 던다스 지역
☎ : 743-4787, 960-6263 미스타 최